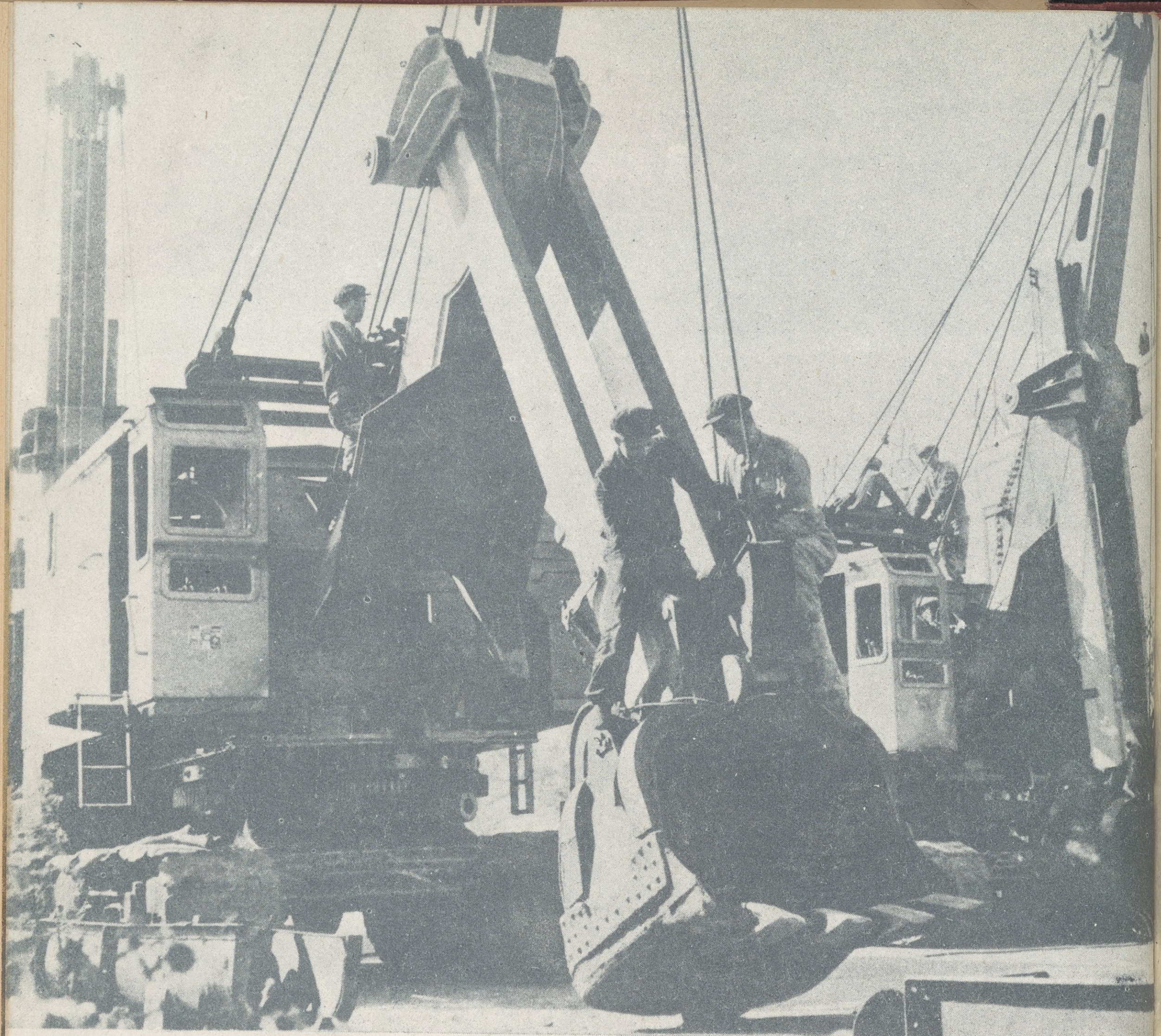


청년생활

11

1962



채취 공업 부문에 더많은 기계 설비를!

릭원 기계 공장 청년 직장 리 기봉 천리마 작업반원들은 조립 작업을 흐름식으로 전문화하여 조립 기일을 2 ~3일 간씩 단축 함으로써 더 많은 엑쓰까와똘을 만들어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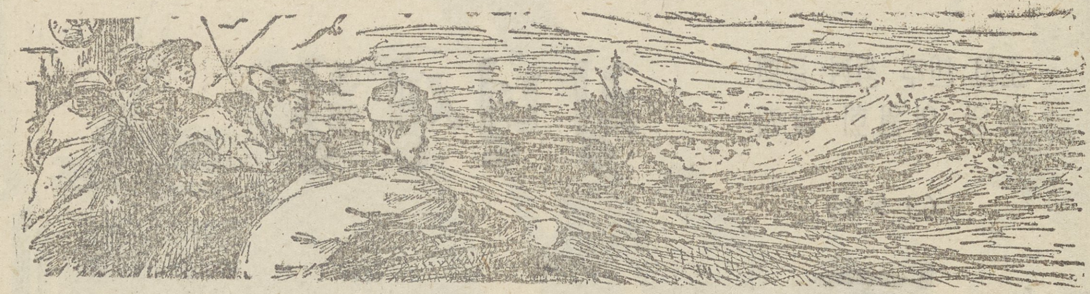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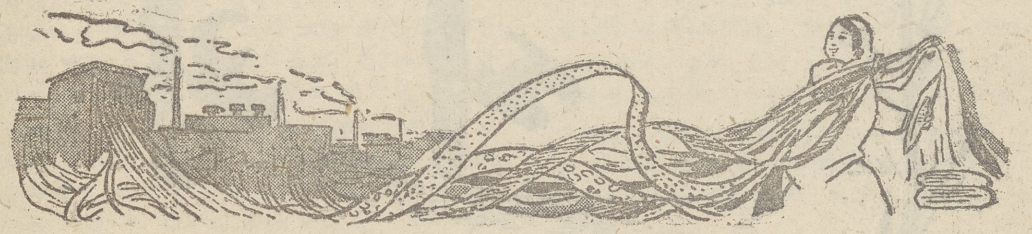
청년생활

(158)



11
1962





차 례

서광



제2부 중에서

박 달

—전호에서 계속—

성호는 다시 한번 가슴이 내려 앉았다. 입이 딱 들어 붙은 듯 말이 나가지 았않다. 그런데 금숙은 몹시 흥분해 있었다. 가슴이 사뭇 들먹이였다. 금숙이가 먼저 말을 했다. 《공판이 났다는데 판결이 어떻게 내렸어요?》

그의 말 소리는 처음부터 떨리고 있었다. 성호는 더욱 말이 나가지 않았다. 금숙이가 금방 폭 쓰러지는 것만 같다. 눈 앞에서 금숙의 절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성호는 그저 번히 금숙이만 바라본다. 대답을 못 하는 남편을 바라보던 금숙의 눈에서는 대번 눈물이 주르르 흘러 내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성호는 태연한 얼굴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금숙은 더욱 폭포처럼 눈물이 쏟아져 말을 못했다.

《속 시원히 말씀해 주세요. 함흥 시내에서 돌아 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말씀을 안해 주세요?》

금숙은 목이 메여 말을 더 계속하지 못한다.

일제 재판소는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공판과 언도, 일체를 극비에 붙이고 있었으며 보도를 금지했다. 그러나 이미 조선 인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대사건이라 말이 퍼져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금숙은 시내에서 그 소식을 들은 것이다. 금숙은 더욱 흐느끼며 울었다. 성호는 조용한 음성으로 말했다.

《금숙이, 어서 돌아 가요, 내 편지로 자세한 것을 알려 드리겠소.…》

성호는 금숙이를 여러 가지로 위로했다. 어느덧 면회 시간이 지났다. 널문이 철컥하고 내려 닫기며 두 사람을 갈라 놓았다. 성호는 돌아 섰다. 창문 저 쪽에서 여전히 울고 있는 안해의 흐느낌을 들으면서 감방으로 걸어 가는 성호는 참아 발'길이 옮겨지지 않았다.

이 날 오후 특별 허가를 얻어 성호는 편지를 쓰려 나갔다. 봉함 엽서인 편지지를 펼쳐 놓고 마주 앉으니 어떻게 편지를 썼으면 좋을지 붓대가 나가지 않는다. 빈농의 가정에 태여나 가난하게 자라다가 남편이라고 유일한 희망과 꿈을 안고 자기 옆으로 달려 온 금숙이, 그러나 꿈 한 번 활짝 피여 보지 못한 채 여직 무지무지한 가시덤불만을 헤쳐 온 금숙이, 남몰래 눈물 짓던 밤만이 지속되여 온 금숙이, 사랑하는 어린 아들과 딸을 원쑤놈들에게 빼앗기면서도 그래도 행여나 좋은 세상을 볼가 해서 조금도 락심 않고 남편을 의지해 뼈가 부서지게 혁명을 도운 금숙이, 그 금숙에게 오늘 무엇이 돌아 가겠는가. 편지를 어떻게 써야 한담…성호는 부지중 목이 메여 올랐다. 금숙이가 불쌍했다.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금숙이다. 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붓대를 놀렸다.

《…금숙이 울지 마오. 나로 하여금 교수대를 향해 씩씩하게 태연하게 나가게 해 주오. 혁명가로서 교수대에 오르는 것은 이미 각오한 바이며 또 영광이기도 하오. 인제부터는 나를 잊어 주기 바라오. 다만 당신을 진작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즐겁게 해 드리지 못 한게 후회되며 가슴 아프오. 그러나 당신에게는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꼭 올 것이요. 오직 나의 바라는 바는 앞으로 더욱 굳세게 살 것이며, 용감하게 살 것이며, 오래 오래 살 것을 축원하는 마음 뿐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없더라도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나 대신 수발이나 거두어 주오. 그 외에 더 바랄 것은 없소. 사랑하는 나의 안해 금숙에게 이 글을 올립니다. 안녕히 계시요. 나는 며칠 후 서울로 올라 가겠소.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지는 날까지 좀 더 우리 주장을 세워 보려 하오. 그럼 부디 안녕히…》

성호는 정성껏 편지를 접어 담당 간수에게 빨리 좀 내 보내 달라고 당부하고 감방으로 돌아 왔다.

며칠 후 금숙에게서 회답이 왔다. 금숙이도 이미 각오했다.

《…편지를 받고 보니 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심하세요. 나는 비록 녀자이긴 하지만 당신의 뜻을 이어 마지막 날까지 굳세게 용감하게 살아 갈 맹세를 다지고 있습니다…제발 바라건대 마지막 그 날까지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조금도 사양치 마시고 요구해 주세요. 안해로서 남편에게 바치는 마지막 지성을 다 할가 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의 일생에서 제일 가는 영광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후 얼마 안 되여 일제의 부당한 판결을 반대하여 서울 복심 법원으로 상소한 조선 민족 해방 동맹과 장백현 당 위원회 지도자들은 서울 서대문 형무소로 옮겨 갔다. 리 동순, 권 벽, 김 시욱, 김 성호를 비롯해 사형 언도와 15 년 이상 언도를 받은 동무들이 일제히 복심 법원으로 상소했던 것이다.

서대문 형무소에서는 사형을 구형 받으면 의례 손목에 수쇠를 채워 두는 것이 규정으로 되여 있었다. 성호는 미결 감방으로 들어 가기 전에 수쇠부터 찼다. 성호는 수쇠를 찬 채 함흥 독방과 규모가 비슷한 독방에 들어 갔다. 서대문 형무소는 함흥보다 규모가 컸다. 매개 동마다 감방들이 수십 개씩 달려 복도 저쪽 문이 아득하게 내다 보였다. 복도는 중앙에 있고 거기서부터 부채'살처럼 뻗어 나갔다. 그 복도를 끼고 감방들이 마주 보며 죽 달려 있었다. 성호는 맨 먼저 방에 들어 갔기 때문에 다른 동지들이 어느 복도로 갔는지 어느 방으로 갔는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복도를 통해 감방문이 철커덕거리며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을 보니 이 3 자에도 같은 동지들이 여러 방으로 들어 가고 있는게 알리였다. 성호는 우선 통방 신호부터 옆방에 보내 보았다. 옆방에서 이내 신호를 보내 왔다. 알아 보니 그 옆방의 사람은 영등포에서 로동 조합 사건으로 들어 와 있는 동무였다. 성호가 갑산 사건으로 함흥에서 제 1 심 언도를 받고 왔다고 하니 옆방 동무는 놀란듯 반가와하며 계속 암호로 담화를 나누었다.

《동지들의 사건을 잘 안다. 수고했다. 나는 서 경직이다. 김 일성 장군에 대해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좀 해 달라, 우리 방은 네 사람이 있는데 다 사상범이다. 우리는 동지들 언도 소식을 듣고 여기 올 줄 기다렸다. 김 일성 장군님 이야기를 모두 듣고 싶어 한다.…》

암호로 글'자 한 자, 한 자 두드리는 서 경직의 통방은 아주 능숙했다. 성호는 이 요구를 반갑게 접수하고 앞으로 매일 통방으로 김 일성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첨가했다.

《손에 수쇠를 차서 통방 치는 게 아주 부자유하다. 간수놈 눈에 띄우기 쉽고…그러나 힘껏 치겠다.…》

성호는 우선 옆 방에 그런 동무들이 있는 게 여간 반갑지 않았다. 감방은 몹시 추웠다. 창틈과 문틈으로 복도와 밖에서 새여 드는 바람이 여간 맵짜지 않다. 코 끝이 시리고 귀'부리가 얼어 들었다. 서울은 함흥보다 기후가 따뜻하다는 데 왜 이렇게 추울가. 그러나 성호는 이것 한 가지를 몰랐다. 함흥에서는 나중에 여러 사람이 같이 있었으니 겨울이 와도 그렇게 추운 줄은 몰랐지만 여기에서는 온기라고는 도제 없는 싸늘한 방에 혼자 있기 때문에 추위가 더할 것은 뻔한 일이였다. 또 한 가지는 심신의 피로와 함께 몸이 점점 쇠약해져 추위에 저항하는 기력이 점차 적어지고 있는 그것이였다. 사실 성호는 서울에 오면서부터 남달리 추위를 더 탔다. 그런데다가 손목에는 무겁고도 찬 쇠를 차고 있기 때문에 손에는 온기가 통하지 않는듯 감각마저 없다.

《개놈들, 이렇게 안 하면 누가 파옥할 줄 아는가?》

성호는 수쇠를 볼 때마다 욕이 나왔다. 하루 종일 잘 때까지 24 시간을 차고 있을려니 손이 어는 것도 어는 것이지만 힘 들고 부자유스럽고 고통스러워 견디기 어려웠다. 그러나 성호는 이미 이러한 육체적 고통에서는 해탈을 한듯 강한 의지로 이것을 이겨 내고 있

였다. 누가 보아서는 성호는 아무런 고통도 없는 사람 같이 보이였다.

그러는 어느 날이였다. 옆방에서 통방 신호가 왔다. 들어 보니 쏘독 전쟁의 보도인데 위대한 쏘베트 군대는 이번 동기 작전에서 쓰딸린그라드에 집결한 독일 파시스트 군대 30 여만 명을 완전히 섬멸하는 데 전과를 올렸다는 소식이다. 그로 인하여 멀리 모쓰크바 부근까지 침입했던 적들은 드디여 총 퇴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이런 통방을 받은 성호는 너무도 기뻐서 하마트면 만세라도 웨칠 번했다.

성호는 여직 자기가 생각했던 그 대로 대세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니 더욱 신심이 확고해졌으며 유쾌하기 짝이 없었다. 성호는 서 경직에게 다시 통방을 했다.

《독일 파시스트는 미구에 패망하고 말게요. 따라서 일본 군국주의도 패망할 날이 머지 않았소. 놈들은 지금 태평양 전쟁의 전과에 대해 소리 높이 떠들고 있지만 그것은 허위요. 놈들은 같은 제국주의자들이지만 영, 미 련합부대를 못 이기오. 쏘련은 파쑈 독일을 패망시키고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족칠게요. 머지 않았소. 신심을 높이오. 우리 앞에는 지금 휘황한 광명이 나래치고 있소. 우리 사건 동무들에게 전부 전달되도록 통방을 해주.》

성호는 이렇게 기운이 나서 통방 신호를 쳤다. 이 때 성호의 손에서는 무서운 통증이 생기고 있었다. 그러나 통방 신호를 다 칠 때까지는 그것을 못 느끼였다. 통방을 다 치고 숨을 후 내쉬는데 갑자기 두 손이 저려났다. 그러고 보니 손이 퉁퉁 부어 올라 헐렁헐렁하던 쇠고랑이 마치 터질 것만 같았다. 손목과 손'가락이 부풀었다. 물론 손이 이렇게 붓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쇠고랑 박은 손은 이미 얼어서 감각이 없어진지 오래다. 그러나 성호는 그 고통을 극복했으며 잊어 버렸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 너무도 흥분해서 통방을 받고 또 치고 했더니 와락 악화된 모양이다. 성호는 정 참기 어려웠다. 그러나 입을 악물고 참았다.

점심 때 간수 부장이 수쇠 점열을 왔다. 놈은 며칠만큼 이렇게 돌아 다닌다. 문을 열고 수쇠가 제대로 채워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 때 성호는 말 없이 퉁퉁 부은 두 손을 내밀었다. 손이 너무도 부어 쇠고랑이 움직이지 않는다. 간수 부장도 딱한듯

《왜 이런가?》

하고 물었다.

《얼었나 봅니다.》

성호가 말했다. 부장이 한참 굽어 보다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내더니 먼저 수쇠 고랑부터 풀어 준다. 성호는 그것만 풀어도 살 것 같았다.

《지금 의무실로 가자.》

부장이 성호를 데리고 복도 중앙에 나와 그 한쪽 방에 차려 놓은 의무실로 들어 갔다. 흰 까운을 입은 젊은 의사가 한참 손을 들여다 보더니

《곪았습니다.》

하고 부장에게 말한다.

《곧 처치되겠소?》

부장의 말이다.

《네.》

의사는 가위와 집게로 손목 피부를 베였다. 누렇고도 뜨물 같은 고름이 쏟아졌다. 성호는 금시 나를 것 같이 시원했다. 의사는 두 팔목에 약을 바르고 흰 붕대를 감았다. 부장이 감방으로 데려다가 넣고 문을 닫을려고 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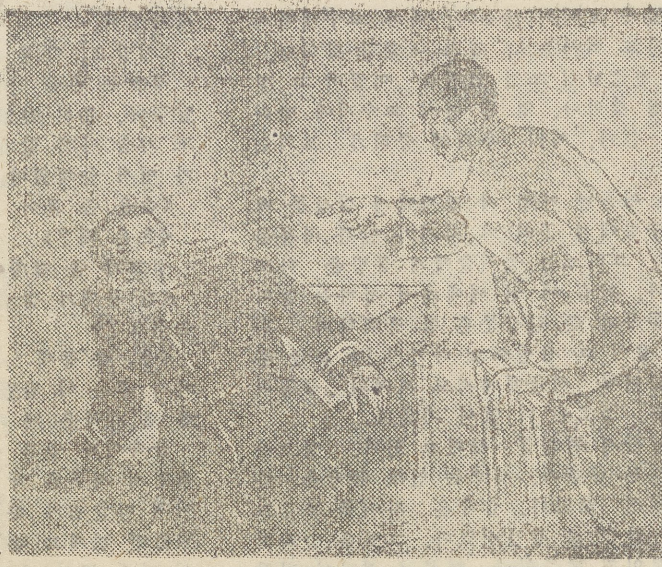
《손목이 다 나을 때까지 너에게는 특별히 수쇠 채우는 것을 면제한다. 얌전히 있으면서 치료를 받아라.》

부장놈은 문을 쾅 닫아 걸고 가 버렸다. 참 다행이였다.

독일 파시스트들이 퇴각을 하는 판인데도 일본은 태평양에서 자기들의 승리를 더욱 요란히 떠들며 미, 영을 굴복시킨다고 떠벌렸다. 그러면서 서대문 감옥 내에 있는 전체 사상범들에게 감상문을 하나씩 쓰라고 했다. 성호는 붕대를 감은 손이지만 감상문을 쓰겠다고 했다. 간수가 성호를 불러 내 갔다. 성호는 이 감상문을 쓰면 어떤 육체적 고통이 올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지만 놈들이 떠벌리는 그 허위 선전이 미워 한 마디 욕을 꽉 해 줄 생각으로 나온 것이다. 성호는 감상문에 다음과 같이 썼다.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은 다만 시일 문제뿐이다. 일본이 패망하게 되면 우리 조선은 해방된다. 나는 앞으로 이 해방된 조국을 어떻게 륭성 발전시키겠는가 하는 것만 생각할 뿐이다.》

성호는 얼른 감상문을 뒤집어 놓고 감방으로 들아 왔다. 그리고는 서 경직에게 통방을 했다. 감상문을 썼는가? 대담하게 써라, 했더니 이미 나가서 썼는데 감옥에 들어 앉으니 잘 모르겠다고 썼다고 답이 왔다. 성호는 자기가 쓴 감상문을 그대로 통방하며 그런 신념으로 감상문을 쓰게 하라고 동지들에게 전하게 했다.



《…일본의 패망은 사실상 시간 문제다.…》

성호는 놈들이 감상문을 지금쯤 모두 읽었을 게다. 놈들은 그것을 보고 격분할 것이다. 인제 나를 끌어내다 또 무슨 지독한 형벌을 줄테지, 하고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웬 일인지 아무 소식이 없다. 성호는 혹 그 감상문이 류실되지나 않았나? 만일 그렇다면 다시 쓸 것을 제기해야겠다고 별렀다. 저녁 식사가 끝나도 소식이 없다. 참 이상한 일이다. 그런데 취침 조금 전에 간수가 오더니 나오라고 한다. 성호는 나오면서 (이렇게 밤 늦게 끌어내는 것을 보니 아마도 단단히 할 모양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데리려 온 간수놈 뒤로 따라 갔다. 간수는 성호를 계호계 주임인 간수장에게로 안내했다. 코 밑에 까맣게 코'수염을 기른 간수장놈이 성호를 의자에 앉으라 한다.

《이게 자네가 쓴 감상문이 옳은가.》

간수장은 성호의 감상문을 내밀며 물었다.

《그렇소.》

성호가 태연히 대답했다.

《무슨 근거에서 너는 일본 제국이 패망한다고 보는가.》

간수장이 리론적으로 캐여 물었다. 성호가 대답했다.

《그건 뻔한 사실이다. 일본은 미, 영을 기습했지만 종당에는 그 힘을 당하지 못할 것이다. 일본은 중국에서 벌써 5 년째 전쟁을 하지만 중국을 굴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동맹자인 파쑈 독일은 지금 총 붕괴되고 있다. 이태리는 이미 힘이 없다. 독일의 패망은 눈앞에 있다. 쏘련은 독일을 격파하고 곧 총'부리를 일본에 돌릴 것이다. 앞으로 일본은 강대한 쏘련의 공격을 받을 것이며 중국의 공격을 받을 것이며 미, 영, 불의 공격을 계속 받을 것이다. 일본은 중국과의 단독 전쟁에서 얼마나 력량을 쏟았는가, 그래도 당신들은 굴복시키지 못 했다. 일본의 패망은 사실상 시간 문제다.…》

성호의 말이 여기까지 이르자 간수장은 당황해

《그만 두어라, 듣기 싫다. 너는 똑똑한 놈이다. 그러나 너는 네 운명을 알아야 한다. 너는 일년 이내에 교수대에 달린다. 일본은 그 때까지는 망하지 않는다. 머지 않아 죽을 놈이 조국의 륭성 발전을 운운하니 가소롭기 짝이 없다. 좋다. 너를 중형벌에 처하고 싶지만 우리가 요구한 감상문이니 그렇게 안 하겠다. 그 대신 너는 암만 상소를 해도 교수대는 면치 못 한다는 것만 알아라.》

간수장은 성호를 그대로 돌려 보냈다. 성호는 그 놈 앞에서 일본이 패망하지 않을 수 없는 론증을 한바탕 퍼붓고 나니 가슴이 후련했다. 한편 놈들의 하는 짓이 이상하기도 했다. (우리들의 마음 속을 떠보자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쯤 사형 언도와 혹은 무기, 장기 언도를 받았으니 마음이 어떻게 변해지고 있는가를 알아 보려는 것인가? 그렇다면 사상범들 전부에게 감상문을 씌울리 없지 않는가?) 성호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간수장놈이 하던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래 놈들은 나를 사형할 것이다. 제 놈들이 모욕을 당한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라도 1심 판결대로 내밀 것이다. 그러나 나 하나는 죽일 수 있어도 제 놈들이 망하는 길은 막지 못할 것이다. 조선 인민들은 조국을 찾을 것이며 륭성 발전시킬 것이다.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지상 락원을 건설할 것이다.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현실로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겠다고 일찍부터 결심하고 싸움의 길에 들어 선 것이 아닌가, 이제 모든

것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가. 내가 교수대에서 눈을 감아도 력사는 그 길로 내달릴 것이다. 김 일성 장군님이 조선 인민을 이끌어 그 길을 달리실 것이다. 열 번 다시 교수대에 달려도 한이 없다. 이미 우리의 승리가 보이는데…)

성호는 이튿날 아침 서 경직에게 감상문 때문에 간수장에게 불려 가 자기가 말한 내용을 통방했다. 그리고는 동지들에게 통방을 하도록 하였다. 점심 때 권 벽에게서 전하는 말이 왔다. 《동무가 쓴 감상문은 참 통쾌하다. 우리는 다 같이 그 신심으로 나가자!》 조금 후에는 동순이와 시욱에게서도 격려의 통방이 전해 왔다. 성호는 더 없이 기뻤다.

간수가 와서 면회를 왔다고 한다. 성호는 반가와 얼른 나갔다. 성호는 인제 금숙을 만나도 두렵지 않았다. 금숙은 자기를 조금도 원망하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그것은 승리의 앞길이 보이기 때문이다. 행복의 서광이 비쳤기 때문이다. 그 행복스런 지상 락원에서 금숙은 남편을 원망할게 아니라 남편에게 더욱 존경의 뜻을 표시할 것이며 남편을 오래 잊지 않을 것이며 그 사회에서 즐겁게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금숙은 이번에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금숙은 남편이 서울로 올라 온 뒤로 자기도 서울로 올라 왔다. 시욱의 안해 서 분옥도 올라 왔다. 두 사람은 서로 도우며 침모살이, 시모살이로 돈을 벌어 남편들에게 사식을 대주고, 사복 (자기들이 집에서 가져다 입는 옷)을 대주고 또 돈을 만들어 변호사를 대여 남편들을 사형이란 악독한 극형에서 구해 주기 위해 자기들의 힘을 다 하고 있었다. 금숙이와 분옥은 반드시 자기들 힘으로 남편들을 극형에서 구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기에 금숙은 남편을 보고도 그전처럼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금숙은 면회 창'구멍으로 우련히 바라보이는 남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남편의 얼굴은 더욱 파리해졌다.

《몸이 어떠세요. 얼굴 색이 왜 그렇게 희여요, 앓으시지 않으세요?》

금숙이가 물었다. 성호는 고개를 내둘렀다.

《아니 아픈 데 없소. 당신은 요즈음 어떻게 지내오.》

《저는 잘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어디가 꼭 아프신 얼굴이예요!》

금숙은 문이 벌컥 열릴 때 얼핏 본 남편의 손에 무슨 붕대가 감긴 것 같은 것을 이제야 생각했다.

《정말요. 아픈 데는 없소, 안심하오.》

성호는 손을 안 뵐려고 밑으로 더욱 감추며 말했다. 손이 얼었다는 말을 들으면 금숙이가 또 가슴 아파 할가 봐서였다. 그러나 금숙이가 먼저 눈치챘다.

《손을 좀 들어 보세요.》

《손은 왜?》

성호가 좀 당황했다.

《흰 붕대가 감긴 것 같았는데 제가 잘못 봤는지요?》

《응, 손'등에 부스럼이 좀 나서 의무국에 가서 좋은 약 발랐고 붕대도 냈소. 그런데 당신 손'가락은 왜 처맸소?》

금숙이가 얼른 손'가락을 감추었다. 밤을 새면서 서투른 싹 바느질을 하기에 골무가 뚫어져 바늘귀가 손'가락을 찌르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관계로 손'가락에서 피가 흐르고 그것이 다시 독이 나서 손'가락이 퉁퉁 부었던 것이다. 그래 할 수 없이 손'가락을 째고 붕대를 한 것이다. 그러나 금숙은 남편에게 그 말을 하면 또 사식도 안 먹는다, 사복도 안 입는다고 도로 내보낼가봐

《김치를 담그다가 식칼에 손고락을 좀 비여서 잡아 맸어요.》하고 대답해 버렸다.

성호는 애처로운 시선으로 물끄러미 금숙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금숙이는 자기 손에 대해 거짓말을 한지라 손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았다.

《무엇 요구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무 것도 없소.》

《왜 자꾸 그러세요, 안심하세요. 마음 푹 놓고 기다리세요.》

금숙은 변호사를 생각하며 말했다. 그러나 성호는 다른 의미에서

《마음을 푹 놓았소, 인제 내 마음은 아주 개운하오.…》

면회 시간이 지났다. 문이 철컥 닫혔다. 성호는 금숙이와 이렇게 갈라지는 시간이 제일 괴로왔다 .

(4)

철창 밖에서, 계절이 바뀌였다. 봄, 여름, 가을, 또다시 겨울이 왔다. 1943년 12월 28일 일제 서울 복심 법원에서는 자기들의 패망의 날이 다가 옴을 감촉하자 부랴부랴 장백 사건과 갑산 사건에 대한 제 2 판결을 내리였다.

성호는 이 판결에서 무기 징역 언도를 받았다. 김 시욱, 리 용운 동무들이 다 무기로 되였다. 그러나 놈들은 끝끝내 권 벽, 리 동순과 지 정환, 리 문걸 등 무장 부대에서 직접 나와 공작하던 간부들 네 동무에게는 사형을 그대로 언도했다. 이 부당한 판결에 분개한 동지들은 모두 제국주의를 폭로하는 연설을 또 한바탕하였다.

성호는 형무소로 돌아 오자 이내 시욱에게로 통방을 했다.

《놈들의 패망은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귀중한 전우 네 동지를 구원합시다. 놈들이 패망할 때까지 네 동지의 사형 집행을 연장시키기 위해 우리 모두 고등 법원에 상소하여 시일을 끌어 봅시다!》

시욱이가 이내 동의하는 통방을 보냈다. 성호는 네 동지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한편 시욱이와 련계를 가지고 변호사를 내세우고 전원이 고등 법원에 상소하였다.

옆방 서 경직이가 성호에게 무기로 언도를 받은 데 대해 계속 축하의 통방을 하였다.

《김 성호 동지! 동지는 인제 문제 없이 놈들이 패망하는 것을 목격하실 수 있게 되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 일성 장군께서 사랑하시는 동지는 다시 그분을 만나 뵙게 되였습니다. 해방이 되면 우리를 잊지 말고 지도해 주십시요. 조국 건설을 위해 힘껏 싸워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련거퍼 울려 왔다. 성호는 그런 축하를 받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대답했다.

권 벽, 리 동순 등 네 동지를 구해 보려고 성호와 시욱은 밖에 있는 금숙과 분옥 이와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 했지만 이미 자기들의 패망을 명확히 내다 본 일제는 조선 공산주의자들을 하나라도 더 살려 둘 필요가 없다 하여 고등 법원에서는 상소를 기각하고 복심 법원 판결을 그대로 확인해 버리였다.

성호는 너무도 분했다. 패망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이지만 극도로 저주로웠다. 그리고 있는데 리 동순과 권 벽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통방으로 울려 왔다.

《두 동지가 사형으로부터 무기로 된 데 대해 축하를 드리요. 놈들은 우리만은 어차피 교수대로 끌고 나갈려고 하오. 다만 유감인 것은 머지 않은 앞날에 일제의 패망과 조국의 자주 독립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들 때문에 너무 락심은 마오. 우리는 이미 각오한 바 있소. 우리는 우리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유유히 놈들의 교수대로 나갈 것이요. 마지막 부탁은 두 동지를 비롯해 전체 동지들이 건강을 보존해 달란 말이요. 우리가 승리한 후 김 일성 장군을 다시 만나 뵈우면 우리의 열렬한 인사를 전해 주오. 어린 동무들을 부탁하오. 그럼 혁명 동지들! 우리의 마지막 인사를 받아 주오. 영원히—리 동순, 권 벽…》

이 통방을 받은 성호는 그저 가슴이 미여지는 것만 같았다. 불시에 뜨거운 눈물이 좌르르 쏟아졌다. 성호는 다시 두 주먹을 쥐였다.

《이놈들 두고 보자. 네놈들은 인제 천백 배로 복수를 받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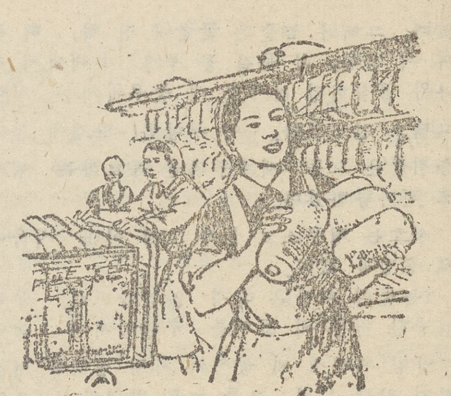
성호는 이를 악물었다. 그러면서도 네 동지에 대한 애절하고 원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무슨 방법이 없겠는가. 독일 파시스트 놈들은 아직도 잔명을 보존하고 있지, 일본 제국주의도 패전을 거듭하면서도 버티고 있다. 일제는 아직도 만주에 있는 100만 관동군이 건재한다고 떠벌리고 있다. 문제는 그 놈들을 하루 바삐 섬멸하는 데 있다. 쏘련 군대가 진격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쯤 해결될 것인가?》

성호는 답답하였다. 놈들은 최후 판결을 내렸으니 사형 집행을 급히 서두를 것이 뻔하다. 그 전에 무슨 변동이 없겠는가? 그러나 성호의 이 초조한 마음은 풀 길이 없다. 성호는 저녁마다 권 벽과 리 동순 동무들에게 위안과 고무 격려의 통방을 두드렸다. 그런데 네 동지는 갑자기 방을 옮기였다. 알아 보니 구 4 사로 갔다고 한다. 성호는 소제부를 통하여 위안의 말을 보냈다.

(다음 호에 계속)

전진하는 정방공들



수상 동지께서 황해 제철소를 현지 지도하시고 전체 근로자들을 《120 일 전투》에로 부른 며칠 후 평양 방직 공장 송 천금 천리마 청년 작업반원들은 한 자리에 모여 앉았다.

10 년간 단 하루의 결근도 없이 자기 계획을 넘쳐 실행하고 있는 리 인준 아주머니, 남이 360 추 밖에 못 본다던 기대를 혼자서 1,440 추까지 맡아 봄으로써 혁신을 일으킨 하 정자 동무…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흥분된 기색이 어려 있었다.

맨 먼저 작업반장 송 천금 동무가 자리에서 일어나 현재 기업소가 처한 형편, 《120 일 전투》의 의의, 작업반 앞에 차례진 긴장된 전투 과제에 대하여 이야기해 나갔다.

그러자 전체 작업반원들은 서로 앞을 다투어 자기를 《120 일 전투》 돌격대에 참가시켜 달라고 제기해 나섰다.

불쑥불쑥 솟아 오르는 손과 손들…

별처럼 반짝이는 눈과 눈들…

물론 그들 앞에 난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였다. 면을 기본 원료로 사용하던 송 천금 천리마 청년 작업반에는 면 대신 스프, 비날론, 아마가 들어 왔다. 그리하여 면을 원료로 할 때 혼자서 4 대의 기대를 맡아 보았다면 스프, 비날론, 아마인 조건에서는 한 사람이 한 대 밖에 맡아 볼수 없는 형편이였다. 게다가 작업반에는 갓 입직한 나어린 동무들이 대부분이다. 어떻게 그들까지를 포함한 14 명의 작업반원들이 20 대의 기대를 움직이겠는가?

바로 문제의 결린 고리는 여기에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문제를 두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는 것이다.

하 정자 동무가 먼저 일떠섰다.

《동무들! 지금 당에서는 설비 리용률을 백방으로 높이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로력을 합리적으로 잘 조직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설비 리용률을 높이는 것이예요. 우리가 로력이 모자란다고 어떻게 설비를 사장시킬 수 있겠어요. 때문에 나는 오늘부터 있는 힘을 다하여 2 대 이상 맡아 보겠어요.》

리 인준 아주머니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 나면서 《나는 욱양공으로써 6 명이 하던 몫을 4 명으로 맡아 할래요.》 하고 말했다.

모두가 이에 호응해 나섰다.

이 날부터 송 천금 천리마 청년 작업반원들은 《120 일 전투》를 위한 돌격전에로 힘차게 뛰여 들었다.

실로 그들은 모두 불덩어리처럼 되여 일했다.

교대 시간 몇시간 전에 나와 만단의 작업 준비를 갖추는 순녀 동무! 식사하러 갈 때도 달리다 싶이 하는 신 용녀 동무! 라베트와 부라쉬를 쥐고 춤추듯 움직이는 정자 동무…

일은 쭉쭉 자리가 났다. 그러나 그들은 일하는 과정에서 열성 하나로만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혼자서 한 대 대신 두 대를 돌리고 여섯이 하던 일을 넷이서 하려면 작업반원들의 기술 기능을 급속히 높여야 했다.

설비의 리용률을 높이는 방도도 여기에 있다.

그 중에서도 새로 받아 들인 양성공들을 하루 빨리 키우는 문제가 중요하였다.

작업반장 송 천금 동무는 로력 조직을 합리화하고 개별 담당제를 실시하였다.

자기 자신이 직접 신입공인 신 성자 동무를 맡았고 하 정자 동무는 장 순녀 동무와 한조가 되였다.

그들은 일하는 과정에서도 배워 주었고 집으로 돌아 가는 길에서도, 합숙에서도 배워 주었다.

그 어디가나 호상 배우며 가르쳐 주며 서로 경험을 나누기도 하고 열성적으로 론쟁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생활과 투쟁에서는 뜻하지 않는 곤난도 있는 법이다.

《120 일 전투》가 한창 고조되고 있을 때 그들 작업반에는 자기 일에 자신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동무들도 있었다.

즉 일에서 소극적인 경향이 나타났던 것이다.

어느 날 성자가 천금이를 찾아 왔다.

《반장 동무! 난 암만해도 혼자서 두 대를 맡아 볼 것 같지 않아요. 그리구 우리 작업반 계획두 더 과학적으로 타산해 봐야 하지 않을가요.》

잠간 사이의 침묵이 흘렀다.

천금 동무는 성자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요를 느꼈다.

그는 그의 가슴에다 불을 지펴 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성자 동무! 우리는 지금 전투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최후 돌격전을 하고 있어요.

이런 때 우리는 조금도 주저하거나 동요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고지를 점령해야 돼요.》

그래도 성자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천금 동무는 그후 집으로 갈때나 식사할 때나 계속 성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천리마 기수들의 이야기며 《120 일 전투》에 대하여 거듭거듭 설명하여 주었다. 또 쉬는때엔 그에게 자기 경험을 더 친절하게 대 주기도 하고 밀린 일을 도와 주기도 하였다.

성자 동무는 차츰 동무들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되여 자기도 남들과 같이 일을 잘 할 것을 결의하여 나섰다.

어느 날 천금이네 작업반에서는 일을 끝마치고 모두가 작업복을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정문을 향하여 걸어 나왔다.

이 때 천금 동무는 욱양통을 들고 달려오는 성자 동무와 마주쳤다.

《아니, 성자 동무! 어떻게…집에 가지 않았소?》하고 물었더니

《좀 더하고 갈래요. 난 아직 오늘 계획을 못 했거던요.》 하고는 생긋 웃으며 홱 돌아서 여전히 뛰여 다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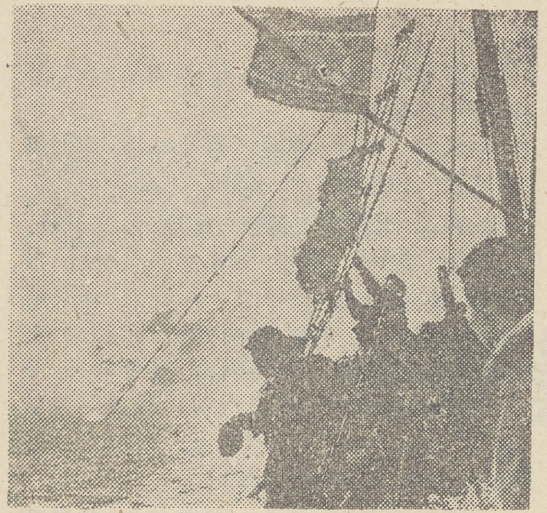
순간 천금 동무는 가슴이 찡하였다.

《성자가 이젠 저렇게 자기 계획을 생각하면서 뛰여 다니는구나…》

이렇게 집단이 한마음 한 뜻이 되여 투쟁한 결과 송 천금 천리마 청년 작업반원들은 온갖 곤난을 무릅쓰고 《120 일 전투》의 첫 달인 9월분 계획을 101.2%로 초과 완수하였으며 14 명의 작업반원들이 스프, 비날론, 아마 등을 원료로 20 대의 기대를 돌림으로써 설비 리용률을 훨씬제고하였다.

지금 그들은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1 차 회의에서 하신 수상님의 연설을 높이 받들고 직물 2억 5천만 메터 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을 더욱 치렬하게 전개하고 있다.

본사 기자 윤 현주



민청호 446호

저 멀리 바라 보이는 마양도 건너 그리운 신포항으로!

천리마 민청호 저예망선 446호는 오늘도 만선기를 휘날리며 귀로에 올랐다. 만선의 기쁨을 안고 손풍금에 마추어 은근히 뽑는 젊은 어로공들의 노래 소리는 끝없이 망망한 바다에로 메아리쳐 간다.

그러나 민청 위원장 박 수섭 동무는 홀로 배'머리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그는 《120 일 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민청 총회를 집행할 문제를 두고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총회를 앞두고 많은 민청원들이 벌써 자기들의 불타는 결의들을 표명해 왔다.

(과연 그들의 결의대로 1,200 여 톤의 고기를 잡을 수 있을가? 그것은 년간 계획의 거이 배나되는 고기를 120일 동안에 잡는 셈이다. 물론 어군 탐지기도 새로 설치되고 민청원들의 기능 수준도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소나마 일시적 흥분이 앞서고 있는 것이 아닐가?)

생각을 더듬어 가던 수섭 동무에게는 지난 3월 어느날에 있은 일이 회상되였다.

그날 원해에서 고기 잡이를 하고 있던 민청호 446호는 세찬 갈바람 (남서풍)을 만났다.

바다는 무섭게 설레이기 시작하였다. 사나운 파도는 저예망선을 단숨에 삼킬듯이 배'머리로부터 뒤'전까지 온통 바다물로 들씨우군하였다. 선장은 귀로에 오를 것인가, 기망을 더 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잠시 망서리였다.

이 때 젊은 어로공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모두다 선장에게로 우루루 달려 왔다.

《선장 동지, 만선기도 못 달고 어떻게 돌아 가겠습니가?》

《오늘 배의 동태가 아주 좋은 데 그냥 어로전을 계속합시다.》

선장은 지긋이 눈을 감은 채 잠시 동안 대답이 없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십오륙년 동안이나 바다의 온갖 풍파를 겪으며 일해 온 그였으나 아직 5~6바르나 되는 사나운 파도 속에서 기망을 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빈틈없는 만단의 전투 태세를 가추고 있는 젊은 어로공들, 련신 물'기둥을 일으키며 몰아 때리는 파도에도 움쪽하지 않고 서 있는 로동당 시대의 억센 청춘들의 모습을 바라보던 선장은 그 어떤 다른 대답을 찾을 수 없었다.

《좋습니다. 어로전을 계속합시다》

민청원들은 기뻐 날뛰며 자기의 전투 위치로 달려 갔다. 이리하여 민청호 446호는 이날도 만선기를 휘날리며 자랑도 높이 자기의 정든 기지에로 유유히 돌아 왔던 것이다.

전국 수산 부문 열성자 대회에서 하신 수상 동지의 교시대로 어김없이 수산물 80 만톤 고지를 점령하려는 젊은 어로공들의 이와 같은 불굴의 투지로 하여 민청호 446호는 자기의 상반년 계획을 241 %로 초과 수행하였으며 계속 혁신의 불'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수섭 동무는 민청원들의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의 모습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려갔다.

그 어떤 애로와 난관 앞에서도 굴함없이 웃음으로 이겨 나가는 황 창호 동무, 매사를 침착하고도 실속있게 해 나가는 하 준락 동무, 말보다 실천이 앞서며 기술 혁신의 선두에 서 나가는 최 회일 동무…

어찌 그들 뿐이겠는가! 배를 타기 시작한지 불과 석달 밖에 안되는 김 병남 동무를 두고 생각해도 그러하다.

낙지 잡이가 시작되였을 때의 일이다. 한번은 볼일이 있어 얼마동안 륙지에 오른 병남 동무가 무엇인가 보자기에다 큼직한 물건을 싸들고 배에 돌아 왔다.

동무들이 그게 무엇인가고 물어도 그는 빙글빙글 웃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그날 저녁이 였다. 수섭 동무는 어로공들이 잠들었을 때 혼자 배의 정돈 상태를 돌아보려고 밖에 나왔다. 그 때 한켠 구석에서 혼자 열성 것 그 무엇인가 하고 있는 병남 동무를 발견하였다.

《그게 뭐요?》

병남 동무는 웬 일인지 얼굴을 붉히며 겨우 말을 하였다.

《분수 장치입니다. 이번에 기술자 동무들을 만났는 데 물을 뿌려 주면 낙지떼들이 모여 든다고 하지 않겠소, 그래 한번 시험해 보려고…》

병남 동무는 말끝을 채 맺지 못 하였다. 그러나 민청 위원장은 그의 심정을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사실 그는 배를 탄지 얼마 안되여서 기능상으로는 다른 동무들에게 뒤떠러지고 있었다. 그는 남과 같이 일을 해 제끼지 못 하는 것을 항상 미안스럽게 생각하고 하루 속히 높으 기능을 소유하기 위하여 정력것 배우는 한편 그 무엇인가 일을 애써 찾아 하면서 다른 동무들에게 뒤떨어지지 않게 일하며 살려고 고심하는 것이였다.

이번에도 그는 륙지에 오른 틈을 타서 기술자들을 만나고 분수 장치까지 만들어 온 것으로 보아 몇일 밤을 잠자지 않고 만들었다는 것이 분명하였다.

수섭 동무는 그만 그를 와락 끌어 안았다.

《참 좋은 일을 생각해 냈소. 장하오》

《위원장 동무도…참 이게 뭐 큰 일이라구요》

명상에서 깨여 난 수섭 동무는 굳은 결심을 다지였다. 《이런 동무들을 두고 200 %가 아니라 1,000 %라도 못해 낼 것이 뭐람…그리고 배의 대수리도 끝나고 매일 같이 어로전에 동원될 수 있지 않는가!》

마침내 민청 총회에서는 《120 일 전투》 기간에 1,200 여 톤의 고기를 더 잡아 자기들의 년간 계획을 220 % 이상 초과 완수할 결정이 채택되였다.

전투에 돌입한 446호 민청원들은 자기들의 결의를 틀림 없이 실현하기 위하여 그야말로 눈부신 활동을 전개하였다. 심장은 하나로 불타 올랐고 일손들은 번개같았다.

어군 탐지기가 고장 났을 때 차 롱수 동무는 나흘 동안이나 꼬박 밝혀 가면서 끝끝내 직류 발전기를 만들어 냈으며, 대휴를 서로 먼저 받지 않겠다고 《싸우던》 끝에 억지로 륙지에 떠 밀어 올린 유 영창 동무는 다음 출항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부두에서 사흘밤을 잤였다.

《어떻게 이 벅찬 전투 기간에 단 하루라도 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한결 같은 심정이였다.

《120 일 전투》 기간에 민청호 446호 젊은 어로공들로부터 일어나는 미담은 계속 꼬리를 물었다.

그러나 바다는 때때로 어로공들에게 엄혹한 시련을 안겨다 주는 수가 많다.

하루 밤은 사나운 파도를 무릅쓰며 기망을 하다가 그만 떼'불이 꺼지였다.

어둠 속에서 떼'통을 찾던 저예망선은 배 우측에 대야할 떼'통을 그만 좌켠에 쏠리게 하고 말았다.

만일 이것을 그대로 둔다면 귀중한 한 거망을 헛탕치게 하며 또한 무척 시간이 걸려야 그물을 배에 끌어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도 아주 잘 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자칫하면 어망까지 몽땅 바다 속에 쳐 넣고 말 우려가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배를 돌리자니 로-쁘가 추진기에 걸려 끊어지고 어망까지 잃을 위험이 있었다.

배안은 한동안 긴장하였다.

이 때 묵묵히 사나운 파도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서 있던 민청 위원장은 옆에 서 있던 황 창호 동무를 돌아다 보며 소리쳤다.

《로-쁘를 가지고 오우》

《로-쁘를요?》

하고 황 창호 동무는 놀란 기색으로 민청 위원장의 얼굴을 쳐다 보았다. 그러나 그의 얼굴엔 이미 비장한 결의가 어려 있었다.

《민청 위원장 동무는 그냥 계십시오. 제가 대신…》

그러나 민청 위원장은 다음 말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자기 몸을 로-쁘로 튼튼히 묶었고 한켠 손에는 떼'통에 묶어 그것을 끌어 올릴 다른 로쁘를 든든히 잡고 놓치 않았다.

《념려 말구 로-쁘 끝이나 든든히 잡고 있소.》

미처 말릴 사이도 없이 그는 사나운 파도 속에 첨벙 뛰여 들었다. 파도는 사납게 갈기를 날리며 그를 삼키려고 하였다. 련신 덮씌우는 파도 때문에 숨도 잘 쉴 수 없었다. 한메터를 전진하면 두메터나 도로 밀리우기도 하였다.

그는 입을 악물고 힘껏 헤염쳐 갔다. 겨우 떼'통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이번엔 로쁘를 떼'통에 맬 수 없었다. 심한 파도는 사정없이 그와 떼'통 사이를 갈라 놓군 하였다.

배에서는 그를 돌아 오라고 자꾸만 고함을 쳤다. 그러나 그는 조이 두 시간이나 파도 속에서 악전 고투하면서 끝끝내 떼'통에 로-쁘를 매고야 말았다.

청년들의 기세는 한층 더 올랐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날도 끝내 만선기를 달구서야 기지로 돌아 왔다.

민청호 446호는 매일과 같이 자기 계획을 넘쳐 실행했으며 승리의 개가를 올리군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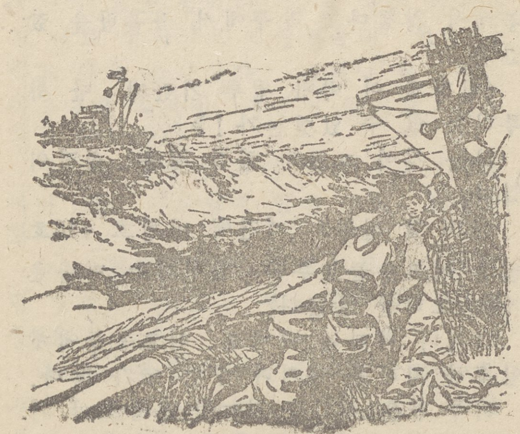
…11월 중순, 그들은 자기의 년간 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80 만톤 고지의 돌파자들, 그들은 환성을 올리며 배 우에서 얼싸 안고 돌아갔다.

《자 손풍금이나 타자구》

누가 이렇게 말하자 벌써 손풍금 소리가 은은히 바다 우에 울려 퍼졌다. 젊은 어로공들은 그에 마추어 자기들이 사랑하는 노래 《청춘은 바다로》를 힘차게 불렀다.

수평선 저 멀리 배'길을 열어라
파도를 헤치며 바다로 가잔다.
……
바다는 청춘 무대, 바다는 우리를 부른다.
바다로 가세, 바다로 가세.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노래 소리에는 년말까지 자기들의 증산 결의를 어김없이 실천할 투지가 충만되고 있었다.



본사 기자 하 만춘

(시)

우리는 청년 건설자

박 세 영

거이 기중기 운두와 비슷한 곳
내려다 보면 아찔한 곳에서,
나는 지금 층막 놓기를 끝 마치고
팔 층을 올리려 벽체를 세운다.

하루에도 여나무 세대가 넘는
알뜰한 살림집들을 꾸려 주는 기쁨
나 살 집 내가 짓는 심정으로
용접의 푸른 불꽃을 뿜는다.

오늘도 일흔 개의 벽체쯤은
끄떼 전에 틀림 없이 세우련만,
앞서는 내 마음에 비하면사
전 날의 굼뜨던 버릇 남아 있는듯.

세우거나 놓거나 척척 틈새가 맞게,
바르고 고르게 맞추는 것 쯤이야
능수나 처럼 해 내건만
내 눈어림이 상기 자처럼은 못된것.

1인 4세대 운동에서 우리가
1등의 영예를 지녔다고,
"빗또"를 궁륭식으로 쌓는 궁리를 해서
전에 없이 만 매의 벽돌을 덜 썼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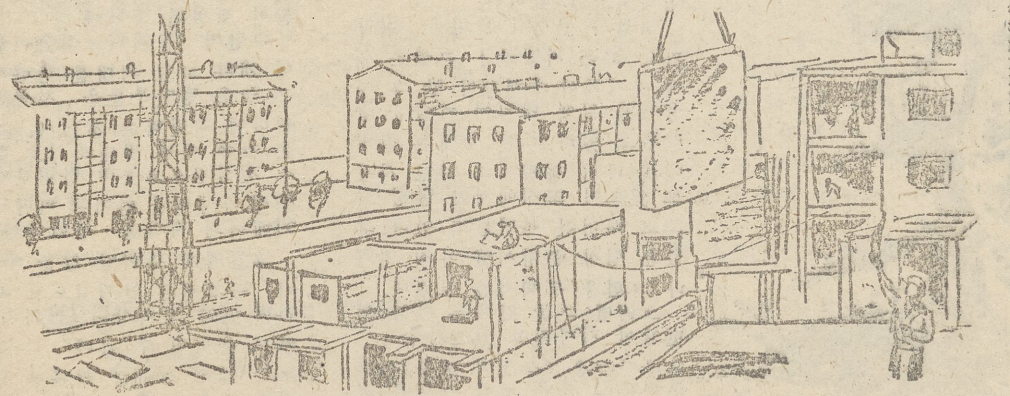
오늘에야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랴,
열층이 아니라 더 높은 집들을
여봐란듯 세워야 할 우리는 청년 건설자
보다 높은 주택 고지가 우리를 부르거니.

어서 세우자, 크림색 다이루를 붙인
한 칸막이 창문 달린 벽체들 까지도,
우리가 짓는 이 금수산 주택이 완공되면
또 하나 도시의 자랑속에 우리 영예 빛나리.

그러기 우리는 오늘 일 마치고도
자신들이 마치 검사원이 된듯,
우리 한 일 낱낱이 돌아 본다,
이사 올 사람들의 기쁜 마음들이 되여서.

우리는 허리에 차는 진구렁을 다지고
당의 부름 속에 화려한 이집을 짓는다.
래일엔 수십층도 수월히 세우려
혁신의 씨앗을 한없이 북돋아 주거니
나는 오늘도 일을 마치면 공장 대학으로 간다.

—1962. 10. 29—





랑림산맥을 넘어서

아득령을 넘어서 황초령에 이르기까지 연연 280리…험산 준령을 넘으며 장강 송전선을 설계한 한 천리마 청년 집단의 영웅적 활동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횡단로

지난 7월 어느날!

붉은 수도 평양을 떠나 자강도 만포 방면으로 달리는 렬차 안에는 한떼거리의 청년들이 타고 있었다. 장강 송전선 설계 사업을 위하여 현지로 떠나는 전기 석탄 공업성 전력 설계 연구소 려 선재 천리마 청년 작업반원들인 것이다.

생활과 투쟁과 랑만을 찾아가는 젊은 사람들!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수행해야 할 그 영웅적인 일에 대하여 가슴을 불태우고 있다. 그들 중에는 벌방에서 나서 벌방에서 자란 사람도 있으며 도시에서만 줄창 학교로 다니던 청년들도 있다. 그들은 험산 준령이란 아직 영화나 그림을 통해서만 보았다.

그러면 그들 앞에는 과연 어떤일이 기다리고 있는가!

당신들은 《조선의 지붕》이라 불리우는 개마 고원 지대를 려행해 본 일이 있는가? 평지대에선 진달래 꽃이 한창 피는 시절에도 거기에는 눈이 나린다. 거기에는 멀리 백두산을 마주 보고 이야기하는 해발 2,500여 메터의 차일봉 련화봉들이 있으며 백산들이 있다. 거울 같이 맑은 호수가 있으며 깊은 계곡과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수해(樹海)가 있다. 그야말로 이 지대는 우리 나라에서도 제일 높은 고원 지대이며 《산악의 왕》들이 집결된 곳이다.

그런데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 개마 고원 지대를 횡단하며 그 높은 령마루들을 정복하기 위하여 출발하는 것이다. 그들은 강계 청년 발전소 1호 발전소 건설장으로부터 랑림산맥의 준령 아득령을 넘어야 하며 1,951메터의 백산을 넘어야한다.

그들에게 길이란 있을 수 없다. 송전선은 일직선으로 서야 하며 만약 설계상의 1미리의 편차도 용허될 수 없다. 그것은 조국 앞에 그만큼 커다란 물질적인 손실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연연 280리의 산악과 수림 지대를 넓이 10여 메터나 되게 아름드리 큰 나무들과 잔나무들을 찍으며 나가야 했고 때로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기여 오르기도 해야 하며 수천길 깊은 낭떨어지를 바오리에 허공 매달려 건너 가기도 해야 한다. 그들에게는 마련된 집이란 없다. 인적미도의 산악이 곧 그들의 잠'자리이며 한장의 천막이 곧 그들의 집이다. 그들은 측량대를 들고 전진하다가 밤이 오면 산 우에서 쪽잠을 자야하며 식사도 바위'돌 우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결코 등산가들도 아니거니 이 몇해 어간에 모두 건설 전문 학교를 나온 새파란 젊은이들이다.

우리 조국의 대산맥들인 랑림산맥으로부터 함경산맥을 정복하는 280여리의 길… 이렇듯 곤난한 려정을 두고 그들은 어찌하여 저렇게 웃으며 떠들며 노래를 부르는 것인가!

강계에서 조고마한 협궤선 렬차를 갈아 탄 그들은 미구하여 강계 청년 발전소 1호 발전소 건설장에 닿았다. 모두들 배낭들을 메고 차에서 내렸다. 순간 《쾅쾅!》하고 요란하게 울리는 발파 소리, 하늘을 치받을듯 키돋음하며 일떠서는 발전소 건물… 발끝에서 불이 일게 달려 다니는 로동자들의 모습이 한눈에 안겨온다.

일행중에서 키가 후리후리 큰 청년 하나가 앞에 나선다. 작업반장 려 선재 동무인 것이다

《저것 보우! 24만 6천크바의 전력을 생산할 강계 청년 발전소 공사는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소. 우리들이 하루 빨리 송전선을 설계하고 그것을 건설해야만 앞으로 저기에서 나오는 풍부한 전력을 조국의 산업지대들에 더 많이 공급할 수 있소. 즉 나라의 동맥을 건설하는 우리의 힘이 7 개년 계획 수행에 적지 않게 이바지하게 된단 말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우리는 왜놈들이라면 2 년 이상 걸려야 할 이 고압 송전선 설계를 단 1 개월 미만에 끝내자는게 아니오, 모두들 당의 후비대 답게 이 일을 수행해 봅시다.》

려 선재 동무를 똑바로 쳐다 보고 있는 모든 작업반원들의 눈이 별처럼 반짝인다. 려 선재 동무는 손을 들어 앞을 가르킨다.

《바로 저것이 우리들이 맨처음 점령해야 할 아득령이요.》

거기에는 담벽같이 강파로운 산이 하늘가에 닿은듯 솟아 있었다. 그리고 구름은 그 허리에서 오락가락하였다.

《우리의 가슴에는 붉은 맹증이 있소.》

곤난은 예상외로 컸다. 작업은 기계조와 벌목조로 나뉘여 진행되였다. 험한 산에 청청 휘감긴 구름 속에서 그들의 도끼 소리가 쩡쩡 울려 퍼졌다. 젊은이들의 말소리도, 노래'소리도 그 구름 속에서 들렸다.

고원의 날씨는 어찌도 변덕스러운지 날마다 비가 내렸다. 원래가 이 고장은 《한달에 40일을 비가 온다.》는 곳이다. 비옷을 두겹씩 껴 입어도 비'물은 여전히 온몸에 배여 들었다. 밤은 더욱 스산하였다. 7월이건만 령마루에서는 추위가 그들의 온몸을 바늘 끝처럼 파고 들었다.

게다가 엊그제까지 학교를 다니던 그들은 나무라군 찍어 본일이 없었다. 작업 첫날에 벌써 손'바닥에 물집이 생기고 그것이 터져 진물이 나왔다. 그러다가도 그 커다란 나무가 메아리를 치며 하늘'길에서 뱅뱅 돌다가 넘어갈 때면 온갖 피곤을 잊고 서로 붙들고 돌아가군 하였다

때로는 절벽 우에 있는 단 한구루의 나무가 측량수들의 시계를 막는 일이 있다. 그렇다고 딴곳으로 측량대를 옮길 수는 없다. 비록 그것이 산이던 강이던 송전선 건설의 《정찰병》들인 그들은 일직선으로만 조국의 판도 우에 금을 그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그들은 그 한구루의 나무를 찍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그 벼랑을 톺아 올라야 했다.

그들의 곤난한 전진에 대하여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으랴! 그들은 서로 밀고 이끌고 부축하면서 그 산으로 톺아 올랐다.

비가 억수로 퍼부었다. 도저히 한치 앞을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높이 수십 메터나 되는 절벽이 가로 막혔다. 그렇다고 전진을 멈출 수는 없다. 맨먼저 려 선재 동무가 기여 올라가 커다란 이깔 나무에 바오리를 매였다. 뒤'이어 한사람 한사람 그 바오리를 허리에 매고 바위짬을 글어 쥐면서 기여 올랐다. 그것도 빈몸이 아니고 도끼며 측량 기구들을 한짐씩 걸머 지고…그런데 당년 20세인 꼬마 박 유린 동무가 그 절벽으로 바위짬을 잡으면서 오르는 순간 비에 물먹은 바위가 그만 금이 가면서 뭉청 떨어졌다. 《앗…》 이렇게 웨치는 순간 유린 동무의 몸은 벌써 바오리에 매달려 수십길 중천에 떠서 앞뒤로 그네 뛰듯 흔들거렸다.

《바오리를 꽉 잡으라…》, 《팔에 힘을 주어라!》

절벽 우에서도, 절벽 밑에서도 동무들은 이렇게 소리쳤다. 그런데 아찔하게 드리운 그 바오리의 끝에서 비'줄기를 뚫고 쟁쟁한 소리가 들렸다.

《념려 말라요! 내 등에 귀중한 측량기구들

이 있는데 어떻게 이 줄을 놓겠어요!》

자기 생명의 위급한 순간에도 절벽에 드리운채 오히려 자기들의 전투 무기인 측량 기구를 념려하는 그의 마음씨…동무들은 가슴이 찡해옴을 느끼면서 있는 힘을 다하여 그를 끌어 올렸다.

그런데 그 절벽을 점령하고나니 앞에는 그보다 더 높은 절벽이 또 막아서고 있지 않는가?

《자 저놈의 절벽을 또 점령하자구! 항일빨찌산들은 이보다 몇백배나 더 힘들었을거야!》

《그렇지 않구! 이쯤한 곤난이야 무슨!》그들이 주고 받는 말이다.

《동무들! 저기를 보오.》 앞서 가던 려 선재 동무가 소리쳤다.

《저기 줄줄히 뻗어간 저 높은 산맥들은 김 일성 원수님께서 싸우시던 장백산에 닿았고 백두산에 잇닿아 있소. 그런데 그이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이어 받은 우리가 어찌 이만한 곤난 앞에 주저 앉겠소.》

그들은 다시 더 높은 벼랑턱에 다가 붙었다. 이렇게 그들은 단 하루 동안에 열개, 스무개의 벼랑을 기여 오르는 때도 있었다. 나중엔 힘이 진해서 걸음 조차 잘 옮겨 놓을 수 없었다. 어느한 벼랑턱을 앞두고 장 동무가 땅에 풀썩 주저 앉았다.

《난 이제는 정말 한 발짝도 가지 못하겠어요.》

아무리 그를 부추켜 주고 타일렀어야 도무지 일어 설 념을 않했다. 비는 더욱 억수로 담아 붙는다. 그는 동무들이 자기를 업자고 등을 돌려 대도 마다하였다. 그만 성미 급한 한 친구는 버럭 소리까지 질렀다.

《뭐 한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구! 그런 약한 소리 말라구! 정녕 그럴려면 되돌아 가란 말이야. 어서…》

그러나 그는 눈물이 글썽해서 말했다.

《그래 나는 락후 분자야, 마음대로 하라구》

이때 분조장인 한 정시 동무가 그의 귀에 대고 소리쳤다.

《장 동무! 힘을 내라구, 우리에게는 붉은 맹증이 있소.》

그 말을 듣자 장 동무는 얼굴을 붉히더니 다시 일어났다. 당의 후비대인 민청원으로서의 영예감! 그것이 장 동무의 가슴에 그런 힘을 안겨 주었던 것이다. 그들의 머리 우에서는 우렁찬 혁명가요가 울려 퍼졌다.

나가자 나가자!
싸우며 나가자!
용감한 기세로
어서 빨리 나가자!
……

큰 정이 담긴 적은 이야기

산정의 밤은 깊어 가고 있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이따금씩 여우나 승냥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젊은이들은 모두 깊은 잠에 노그라들고 있었다. 이런때에도 오직 려 선재 동무만은 잠들지 않고 있었다. 작업반장인 그에겐 할 일이 많았던 것이다.

그는 낮에 측량한것이 조금이라도 편차가 생기지 않았는가? 하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다시 도면을 살펴보고 있었다. 등피에 켜놓은 기름'불이 너울너울 춤출때마다 그의 앞머리칼이 이마에서 춤을 추는듯 하였다.

어느덧 밤은 자정도 넘었고 북두칠성이 꼬리를 쳐들었다. 그래도 선재 동무는 자리에 눕지않고 책을 펼쳐 놓은후 학습을 시작하였다. (비록 조직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학습회만은 해야한다. 평양에 남아있는 동무들에게 학습 진도가 뒤떨어졌어야 안되지! 더우기 나는 수 많은 민청원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작업반장이 아닌가), 그는 미리 계획된 당 대회 문헌 학습을 끝마친 후에야 자리에서 일어나 작업반원들이 잠든 곳에 갔다. 그런데 이때 밖에서 무슨 서걱서걱하는 소리가 났다. 선재는 바싹 긴장해졌다. 밖을 내다보니 그누가 웅크리고 앉아 시'돌에 무엇을 갉고 있지 않는가!

가까이 가보니 꼬마 유린이였다. 그의 옆에는 다 갈아놓은 도끼가 수북히 쌓여 있었다.

《웨 동무는 잠자지 않소? 이젠 새벽녘이 가까워 오는데…》

《반장 동무! 내가 어떻게 잠들 수 있겠습니까? 남처럼 일도 많이 못하는 주제에…

그래서 동무들이 래일 덜 힘들게 도끼나 좀 갈아줄려고요.》

다른 동무들 일을 생각하여 밤을 밝혀가며 수십개의 도끼를 갈아 놓은 그…

그래도 선재는 엄하게 말했다.

《어쨌던 이건 규률 위반이요. 어서들어가자오.》

《반장 동무! 원 남의 심정을 웨 그다지도 몰라줍니까? 이젠 거이 다 갈았는걸요,》

선재는 꼬마를 번쩍 안아 추켜 올렸다.

《유린이! 그래 집생각은 안나오, 그리구 평양 생각두…》

꼬마는 싱글 웃으며 말했다.

《누굴 어린앤줄 압니까? 항일 빨찌산들은 20세의 청년 시기에 왜놈들을 쳐부셨습니다.》 그들은 밤이 깊어가는줄 모르게 오래오래 이야기하였다.

변덕스럽기 짝없는 고원지대의 상공은 방금전까지 별이 총총했건만 물'기 먹음은 비'바람이 몰아치며 흐려들었다.

…얼마후 후두둑거리는 비'소리에 선재는 잠이 깼다. 비는 더 세차게 담아부었다. 그는 《ㄹ》자처럼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는 동무들을 둘러보았다. 천막이 불비해서 비가 새고 있었다.

(날씨도 찬데 모두들 얼마나 추우랴!)

그는 자기의 모포를 옆에 누워있는 정시에게 덮씌워 주고 그들을 지켜 보다가 그냥 앉은 잠이 들었다.

그런데 잠시후 몸이 행결 후늑후늑한 것을 느낀 정시 동무는 어찌하여 잠을 깨자 자기의 몸에 모포가 덮씌워진 것을 알고 황급히 앞에 동무에게 덮어 주었다.

그러자 얼마후 그 동무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옆 동무에게 그것을 덮어 주었다.

이런식으로 궂은 비 내리는 깊은 밤에 한장의 모포는 밤이 샐때까지 돌고 돌았다. 그러다가 내중에 천막 구석에 가서 앉은 잠을 자고 있는 선재를 보고 동무들의 가슴은 뭉클하였다.

그들은 수백리 행군'길에서 계속 서로 의지하고 부축하고 힘든 일은 자기가 맡아하면서 자기의 임무들을 실행하였다.

드디여 그들은 이름높은 백산에 달라 붙었다.

백산! 해발 1,951메터의 백산! 오르면 서울의 삼각산도 마주 보인다는 백산,

이 고지에 접어들면서 그들의 곤난은 더했다. 이 산에는 물이 없었다. 나무를 찍는 그들의 목은 마를대로 말라들었다. 그들은 마른 입술을 감빨며 일했다. 때론 한 모금의 물을 위하여 수천 길 령밑으로 내려가야 하였다.

높은 령마루에서는 계속 안개가 자욱히 끼고 비가 내려서 전진은 더욱 곤난하였다. 그럴때면 그들은 측각수와 측량수들 간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으로 전진을 계속하였다.

간난 신고의 나날은 다시 흘렀다. 그들은 끝내 아아하게 솟은 백산 우에 닿았다. 자기들이 맡은 구간의 측량을 끝마친것이였다.

왜놈들이면 2 년 걸릴 일을 단 25일만에 끝마친 백절불굴의 청춘들…그들의 가슴 속엔 당이 준 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한 긍지감이 출렁거렸다.

구름'길에 닿을 백산 우에 만세 소리 요란하게 터져 울랐다.

《만세!》
《만세!》

그들이 추켜든 한폭의 붉은 기'발이 바람을 안고 힘차게 날리고 있었다.

통신원 전 동근
본사 기자 권 접룡



지상 강좌

우리 나라에서의 계급 투쟁(1)

최 북 성

근대 우리 나라에서 전개되는 계급 투쟁은 그것이 민족 해방 투쟁과 결합되여 있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이는 우리 나라가 외래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당하였으며 또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1930년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하는 우리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조선 사회에 조성된 이러한 실정을 맑스-레닌주의적으로 분석한 기초 우에서 로동 계급의 계급 투쟁을 우리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전개하였다.

그의 빛나는 구현으로 되는 항일 무장 투쟁은 우리 나라 근로 대중의 민족적 및 계급적 원쑤인 강도 일제와 그 주구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주었다.

해방 후 우리 나라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의 계급 투쟁에는 결정적으로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일제의 식민지 통치 기구는 전복되였으며 착취받고 억압받던 인민들의 혁명적 열의는 급격히 앙양되였다. 대중의 투쟁 기세는 일제와 결탁하였던 민족 반역자들, 계급적 원쑤들을 압도하였고 놈들은《쥐 구멍을 못 찾아서 쩔쩔 매였다.》

그러나 미제의 남조선 강점으로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계급 투쟁은 다시금 간고하고도 첨예한 성격을 띠게 되였다.

미제는 인민들에게서 버림 받은 한줌도 못되는 반동 세력들을 규합하여 해방된 조선 인민을 반대하여 나섰다. 조국은 남북으로 량단되였으며 남조선 인민들은 또다시 식민지 노예의 처지에 빠지게 되였다.

이러한 복잡한 정세 하에서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 혁명의 복잡성과 간고성, 장기성을 예견하시고 우선 공화국 북반부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 과업을 완수하며 전 조선 혁명의 강력한 기지를 꾸릴 것을 제시하시였다.

이 과업은 날카로운 계급 투쟁을 통하여 수행되였다.

가장 중요한 투쟁은 우선 정권 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벌려졌다.

왜냐하면 정권을 위한 투쟁은 혁명의 기본 문제이며 계급 투쟁의 최고 형태이기 때문이다.

일제가 패망되고 조국이 일제의 기반에서 해방된 첫 시기에도 주권을 위한 투쟁은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 즉 일제 잔재 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수행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반제국주의 투쟁이 전면에 나서게 되였다.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은 일본 제국주의와 결탁하여 그들의 식민지 략탈 정책의 실현을 적극 방조하였으며 일제의 권력에 의거하여 조선 인민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략탈한 자들이다. 또한 예속 자본가는 본래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비호하에 자라났으며 제국주의와 결탁하여 민족 경제를 파탄시키며 침략자들의 략탈을 방조하여 치부하는 자들이다.

이자들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제국주의에 예속되지 않는 민족적 주권을 수립할 수 없었으며 나라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도모할 수 없었다. 더우기 이자들은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와 남조선의 반동 집단의 조종하에 혁명 력량을 항거하여 나섰을 뿐만 아니라 지어 지방 인민 위원회 내부에까지 잠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로동 계급을 선두로하는 전체 근로 대중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하에 반동 세력의 온갖 준동을 분쇄하고 1946년 2월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를 수립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혁명 력량은 강력한 계급 투쟁의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창건된 인민 정권은 우리 당의 정확한 지도 밑에 제반 민주 개혁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계급 투쟁의 주되는 대상은 봉건적 지주 계급이였다.

지주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반동적인 계급이다. 지주는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에 기초하여 농민들을 중세기적 방법으로 가혹하게 착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기들의 착취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야합하였다. 지주 계급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의 중요한 계급적 토대를 이루고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지주는 우리 나라에서 수적으로 많은 착취 계급이였으며 따라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였다.

이와 같은 지주 계급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계급 투쟁은 첨예성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근로 농민들은 당이 농촌에 파견하여 준 선진 로동자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지주 계급들의 온갖 발악 책동과 반항을 분쇄하고 토지 개혁을 단시일내에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주요 산업을 국유화함에 있어서 로동 계급은 자기 손에 정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자기의 조직된 위력을 시위하면서 일제와 예속 자본가들의 소유를 수탈하였다.

여기에서 로동 계급은 민족 부르죠아지를 예속 부르죠아지와 엄격히 구분하고 그들을 수탈한 것이 아니라 혁명에 인입하도록 하였다.

토지 개혁과 중요 산업 국유화를 비롯한 제반 민주 개혁을 통하여 북조선에서는 제국주의와 반동 세력의 경제적 지반이 소멸되였고 지주와 예속 부르죠아지는 계급으로써 청산되였다. 그와 함께 로동 계급과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민주주의적 력량의 계급적 동맹이 더욱 강화되였다.

날카로운 계급 투쟁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와 같은 성과에 기초하여 1947년 2월에 북조선 인민 위원회가 수립되였다.

《…북조선 인민 위원회는 더욱 강화 발전된 인민 민주주의적 정권 기관으로서 우리의 혁명적 과업들을 전국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가강한 투쟁을 계속 전개하는 한편 북조선에서의 민주 개혁의 성과들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며 인민 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점차 사회주의에로 넘어 가는 과도기의 과업을 수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김 일성 선집 4권 447페지)

과도기의 기본 과업은 낡은 생산 관계를 청산하고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유일적 지배를 확립하며 사회주의적 경제와 문화를 건설하는데 있다.

수정주의자들, 기회주의자들은 마치도 이러한 과업이 계급적 원쑤들에 대한 독재 없이, 계급 투쟁이 없이 수행될 수 있는 것처럼 떠버린다. 이러한《주장》은 계급 투쟁의 무기를 무디게 하려는 어리석은 시도에 불과하다.

과도기에는 그 어느때보다도 날카로운 계급 투쟁이 벌어진다. 왜냐하면

《…전복 당한 착취자들은 10배나 더큰 정력과 광포한 분격과 백배나 더한 증오심을 가지고 빼앗긴 〈천국〉을 회복하기 위하여…싸움에 덤벼》(레닌)들기 때문이며 외래 제국주의자들이 그들을 부추켜 무력 간섭까지 감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만약 로동 계급이 계급 투쟁의 무기를 놓는다면 혁명 위업은 불피코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권력을 장악한 후에도 로동 계급은 결코 계급 투쟁을 중지할 수 없으며 그것을 계속해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의 과도기 계급 투쟁은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북조선에까지 그 마수를 뻗치려고 발광하는 조건하에서 더욱 복잡하고 첨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 과도기에 공화국 북반부에서 진행되였거나 또 진행되고 있는 계급 투쟁의 형태는 어떤 것들인가?

우선 중요한 것은 반 혁명과의 투쟁이다.

김 일성 동지는 사회주의를 지지하는가 반대하는가 하는데 적아 구분의 원칙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북반부에서 전체 인민과 함께 사회주의로 나가려는 사람들은 지지하며 그들과 단결하고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자들과는 싸워야 합니다. 이 원칙을 똑똑히 알아야 하며 이 원칙에서 적아를 구별 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계급 구성에서는 원래의 반 혁명의 계급적 지반은 크지 않다. 우리 나라 주민의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은 로동자, 농민들이며 도시의 광범한 소부르죠아 계층들과 지어는 중소 상공업자들까지도 제국주의 침략자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지지해야할 처지에 있었다.

사실상 모든 반혁명적 책동의 주모자는 제국주의 침략자들이며 극소수의 국내 반동 계급들이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민주 개혁을 통하여 전복된 착취자들의 적지 않는 부분은 월남 도주하였으며 미제의 비호하에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반대하는 각종 음모와 도발 책동을 감행하였다.

북반부에 남아 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자들이 남조선에서 파견되는 간첩, 파괴 암해 분자들과 결탁하여 이러 저러한 방법으로 반항하여 나섰으며 사회주의 건설을 파탄시키려고 악랄한 책동을 감행하였다.

때문에 우리 당은 반 혁명과의 투쟁의 예봉을 이자들에게 돌렸으며 반혁명과의 투쟁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함으로써 놈들의 음모를 제때에 분쇄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은 반혁명과의 투쟁에서 기본 군중에 철저히 의거하여 소수 악질 분자들을 진압함으로써 반혁명의 계급적 뿌리를 제거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반혁명적 행동에 가담한 자들 가운데서도 주동과 피동, 의식적 죄행과 무의식적인 것을 엄격히 구별하였고 이에 있어서 죄행의 동기, 본질을 판명함에 있어서 그들의 계급적 토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전복된 반동 세력의 반항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 반혁명과의 투쟁은 당내에 잠입하였던 종파 분자들이 반혁명과 결탁함으로써 더욱 복잡하게 되였다.

력사적 경험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종파 분자들은 혁명의 준엄한 시기에는 변절하여 적에게 투항한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고질적인 종파 두목들은 혁명의 어려운 시기마다 머리를 들고 당을 반대하여 나섰으며 원쑤들과 야합하여 우리 제도를 전복하려고 반혁명적인 책동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우리 당은 놈들이 머리를 들때마다 철저하고 단호한 타격을 가하였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은 과도기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계급 투쟁의 격렬한 형태였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자기들의 주구인 지주, 예속 자본가, 친일 친미파, 민족 반역자들로써 괴뢰 《정권》을 조작 하였으며 식민지 통치 제도를 수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제와 국내 반동들은 자기들의 반 인민적 통치 제도를 북조선에까지 연장하려고 날뛰였다.

이러한 야망 밑에 미제는 그 졸개들을 사촉하여 1950년 6월 조선 전쟁을 도발하였으며 자기 무력의 중요 부분을 비롯한 추종 국가들의 무력까지 끌어 모아 로골적인 무력 침공을 감행하였다.

따라서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조선 인민의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은 민족 해방적인 전쟁인 동시에 반혁명 세력과의 치렬한 계급 투쟁이였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을 반대하여 진행한 조국 해방 전쟁은 가혹한 계급 투쟁의 표현이였다고 지적하시였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과 함께 북반부에 숨어 있던 계급적 원쑤들, 청산 당한 지주, 예속 자본가, 친미 친일파, 민족 반역자, 간첩 암해분자, 악질 종교인들은 우리 제도를 반대하여 나섰으며 일시적으로 강점된 지역들에서 인민들에 대한 대량적 학살 만행을 감행하면서 지주, 자본가들의 제도를 세우려고 발광하였다.

로동 계급을 선두로한 우리 인민과 군대는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 하에 무장을 들고 덤벼든 외래 침략 세력과 국내 반혁명 세력을 무장으로 타승하였다.

조국 해방 전쟁을 통하여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더욱 단련되였고 우리 나라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의 의식성과 각오 정도는 한층 제고되였다. 반면에 북반부에서 반혁명의 지반은 더욱 약화되였다.

과도기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진행한 계급 투쟁의 중요한 형태의 하나는 자본주의적 요소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투쟁이였다.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심각한 계급 투쟁을 동반한다.

여기에서 우리 당은 이미 전복된 지주, 예속 자본가들의 반항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력히 전개하는 한편 주되는 대상을 부농에게 돌렸다. 부농은 농업 협동화를 반대하는 가장 반동적인 계급이다.

자본주의가 덜 발전하였던 우리 나라 농촌에서 부농은 지주, 예속 자본가의 다음 가는 반동 계급이다. 우리 나라의 부농은 부르죠아지라기 보다는 오히려 지주에 가깝다. 그들은 많은 경우에 타작과 고리대금을 겸하였으며 가혹한 방법으로 농민들을 착취하였다. 따라서 사회주의 개조의 과업, 특히 농업협동화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부농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나라 부농의 세력은 크지 못하였다. 농촌에서 자본주의가 덜 발전된 결과로 부농이 량적으로 얼마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 토대도 미약하였다.

이와같은 실정에 비추어 우리 당은 빈농에 튼튼히 의거하면서 중농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부농을 제한하며 점차적으로 개조하는 정확한 계급 정책을 시종일관 견지하였다.

이리하여 농업 협동화를 반대해 나서는 부농을 제외하고는 그들을 수탈하는 대신에 농업 협동 조합에 받아 들여 개조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부농을 반대하는 계급 투쟁을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적들의 암해 책동에 추종하며 협동화 운동을 반대해 나선 부농들과의 치렬한 계급투쟁 속에서 실현되였다.

그러나 우리 당은 자본주의적 개인 상공업자들에 대해서는 부농에 대해서와는 원칙적으로 구별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물론 민족 부르죠아지도 착취 계급으로서 로동 계급과 적대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제국주의와도 모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적 상공업이 절대적인 우세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개인 상공업자들의 원료, 자금, 기술 등 그들의 존망을 결정하는 모든 조건들이 국

영 기업소들에 종속되여 있었다. 이런 조건에서 개인 상공업자들은 자기의 출로를 사회주의를 접수하는 데서 찾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이와같은 민족 부르죠아지의 특성으로부터 혁명 세력은 그들과의 반제국주의적 동맹을 유지하면서 그들을 점차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였다.

그러나 착취 계급에 대한 평화적 개조가 계급 투쟁이 없이 진행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의 계급적 본성으로부터 틈만 있으면 각종 투기와 모리, 탈세, 행위 등을 감행하였다. 때문에 인민 정권은 이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통제를 가하였으며 특히 개조 정책에 반항하려는 시도에 대하여서는 제재를 가하였다.

이러한 제재의 방법이 설복과 교양의 방법과 배되합였는데 착취자들을 설복과 교양을 통하여 개조하는것 역시 계급 투쟁의 한 형태이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물론 계급 투쟁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진압의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설복과 교양의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설복과 교양으로써 개조하는 방법도 계급 투쟁의 한 형태입니다.》

이와같이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 계급 투쟁 리론을 우리 나라에 조성된 구체적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요소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단시일 내에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도시와 농촌의 광범한 소상품 경리 형태의 사회주의적 개조도 계급 투쟁을 통하여 실현되였다.

소부르죠아지, 특히 농민에 대한 국가적 지도로써 특징 지어지는 이 형태의 투쟁은 소부르죠아지에 대한 착취자들의 영향과 그들 자신의 2중성과 관련되여 있다.

우리 나라 농민은 식민지적 억압과 봉건적 착취를 받아 왔으며 그의 대부분이 빈농민이였다. 그러기에 우리 나라 농민들은 처음부터 로동 계급과 함께 혁명의 주력군으로 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근로자인 동시에 사'적 소유자로서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로동 계급은 자기의 믿음직한 동맹자인 근로 농민들에 대한 강력한 물질적 지원과 지도, 특히 부농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며 농민 대중을 교양하여 그들을 짧은 시일내에 자원적으로 협동화의 길로 나가게 하였다.

도시 개인 수공업자들도 자원적으로 생산 협동 조합에 망라시켜 정치 경제적으로 공고화시킴으로써 그들이 핵심이 되여 능히 개인 상공업자들을 소화할 수 있는 정도로 견고하게 만들었다.

또한 우리 당은 착취의 근원을 청산하는 심각한 혁명 과업에 비추어 근로자들의 계급적 각성을 높이며 모든 분야에서 계급 투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 대중 속에서 교양 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였으며 부르죠아 사상의 표현을 반대하는 강력한 사상 투쟁을 전개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협동화를 본격적으로 전개하면서 계급 교양을 강화할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하시였다.

《오직 당 내에서와 전체 인민들 속에서 계급 교양 사업을 강화함으로써만 우리 인민을 반동적 사상의 침해로부터 수호할 수 있으며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수정주의, 기회주의, 종파주의등 온갖 부르죠아 사상을 반대하는 강력한 사상 투쟁의 전개는 자본주의적 요소들에 대한 로동 계급의 치렬한 계급 투쟁의 한 형태였으며 이것은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로 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은 매우 짧은 시일내에 순조롭게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함으로써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영원히 청산하였다.

반미 구국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라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29년 11월 3일—

애국적인 조선의 청년 학도들은 일제의 식민지 폭압 정치와 노예 교육을 반대하여 반일의 불'길을 높이 추켜 들고 일떠섰다.

《일제를 타도하라!》《식민지 노예 교육 제도를 철폐하라!》는 구호를 힘차게 웨치면서 광주에서 타오른 불'길은 삽시간에 서울, 평양, 부산, 함흥 등 온 나라에 타번졌다. 조선의 거리와 마을들에는 노도와 같은 학생 청년들의 파도가 흘러 넘쳤고 그들이 웨치는 《조선 독립 만세!》 소리는 3천리 강산을 진감하였다. 실로 이 투쟁은 강도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영웅적 조선 청년 학생들의 기개를 온 천하에 시위하였다.

그때로부터 33년—

그 당시 우리의 청년 학생들이 그렇게도 애타게 갈망하던 자유와 행복은 김 일성 동지의 령도하에 손에 무장을 들고 일제를 반대하여 간고한 투쟁을 전개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피어린 투쟁의 대'가로 오늘 로동당 시대에 와서 공화국 북반부에서 현실로 활짝 꽃피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는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동지의 령도 밑에 세인을 놀래우는 위대한 변영과 륭성의 시기에 들어 섰다. 로동자, 농민이 자기의 수중에 주권을 튼튼히 틀어 쥔 공화국 북반부에는 수천년 동안 선조들이 꿈꾸어 오던 착취 없고 압박 없는 사회주의 제도가 확고히 수립되였으며 우리의 청년 학생들 앞에는 청춘의 리상과 꿈을 마음껏 꽃피울 광활한 길이 열려져 있다.

우리의 청년들은 공장, 농촌 그 어디에서나 창조적 로동과 희망찬 생활을 즐기고 있으며 중등 의무 교육제의 전면적 실시와 중등 및 고등 기술, 전문 학교와 대학의 대대적인 증설로하여 전국이 학교망으로 뒤덮히고 있다.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60만 명의 청소년 학생들이 무료로 각급 학교에서 배우고 있으며 대학 및 전문 학교 학생들은 국가에서 거액의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자유롭게 과학과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 또한 야간 및 통신 교육망이 확장되고 수많은 공장 대학과 공산 대학이 창설됨으로써 수만명의 근로 청년들이 생산에서 리탈됨이 없이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였으며 1964년부터는 9년제 기술 의무 교육 제가 실시된다.

마음껏 일하며 배울 수 있는 세상! 실로 수천년의 우리 조국 력사에서 오늘 우리 시대 청년 학생들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청춘와 삶을 즐겨 본일은 일찌기 없

었다.

그러나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오늘도 의연히 압흑의 생지옥 속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마지막 편린마저 빼앗기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압살 당하고 있다.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의 폭압 밑에서 그들은 빈궁과 실업과 질병에 허덕이고 있으며 학교들은 군사 련병장으로, 모리장으로 되거나 폐쇄 당하고 있다. 그들은 일할래야 일'자리가 없고 배울래야 배울길이 없다.

최근에 와서는 남조선 땅에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재침의 마수까지 뻗치여 그들 앞에는 2중적 노예살이의 치욕과 억울함이 닥쳐 오고 있다.

과연 이 모든 비극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미제의 남조선 강점에 있다.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실현될 수 없으며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은 오늘의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남조선의 현 사태를 수습하며 남조선 형제들을 기아와 빈궁, 무권리에서 구원하는 길은 오직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의 통일을 달성하는데 있다.

금번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1 차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께서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연설하시면서 다시금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킬 데 대한 강령적 방침을 재천명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그 누구의 간섭도 없이 조선 사람들 자신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실현되여야 한다.

남조선으로부터 일체 외국 군대를 철거시키는 조건 하에서 남북이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무력을 축소하며 남북 조선의 경제 협조와 교류를 실현하며 국가의 초보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련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길을 거쳐 전 조선 인민의 민족적 숙원인 민주주의적 원칙에 기초한 전 조선 자유 선거에 의하여 남북 조선의 각계 각층을 광라한 통일적 중앙 정부를 수립하고 조국의 완전 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

이는 전 민족의 리익과 전체 조선 인민의 의사를 반영한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다.

남북 조선 전체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은 이 정당한 방안의 실현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승리의 열'쇠는 남북조선 인민이 굳게 단결하여 미제를 우리 강토에서 몰아 내는데 있다.

남북 조선 각계 각층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이 일치 단결하여 반미 구국 투쟁의 기치를 높이 추켜 들고 견결하게 투쟁할 때 미제 침략군은 우리 조국에서 더는 배겨 내지 못할 것이며 조국은 통일될 것이다.

애국적인 남조선 청년 학생들이여!

어찌 미제 승냥이들을 조국 땅에 그냥 두고 참을 수 있겠는가! 우리 청년들은 1930년 대 항일 무장 투쟁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계승하고 있으며 수 많은 애국 선렬들의 붉은 피가 우리의 가슴에 흐르고 있다. 3.1 봉기의 대렬에서, 6.10 만세의 거류 속에서, 그리고 광주 학생 운동의 불'길 속에 타오른 젊은 학도들의 애국적 기개가 당신들의 심장에 높뛰고 있지 않는가! 또한 리 승만 독재 정권을 일격에 타도하고 미제 강점자들의 식민지 통치를 뒤흔들어 놓은 4월 용사들의 항거의 정신이 맥맥히 살아 있지 않는가!

33 년 전 광주의 애국적 학도들은 조선의 한 녀 학생이 모욕당한 데 격분하여 반일의 불'길을 높이 들었거늘 오늘 수천 수만의 조선 녀성들과 청년 학생들이 모욕과 멸시를 받으며 저어 양키의 총구 앞에서 매일과 같이 쓰러지고 있는 참상을 두고 우리 어찌 참을 수 있겠는가.

일어나서 싸우라! 단결하여 투쟁하는 길만이 민족을 배반하지 않는 길이며 조국과 인민과 자기 자신의 번영과 행복을 위한 길이다.

애국 선렬들의 붉은 피를 이어 받은 남조선 청년 학생들이여!

광주를 잊지말라! 반미 구국 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미제 침략자들을 신성한 조국의 땅에서 한 놈도 남김없이 몰아내라.



파쑈적 폭압

미제의 비호와 조종하에 박 정희 파쑈 악당들은 일체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시키고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구실하에 무고한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을 닥치는대로 검거 투옥하고 있다.

놈들은 미제의 철거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였다는 단 한가지 리유로 청년 학생들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횡포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군사 정변후 박 정희 도당은 《민족 통일 전국 학생 련맹》의 애국적 학생들이 《남북 학생 회담》과 자주적 평화 통일을 요구해 나섰다하여 또는 예속적이며 매국 조약인 《한미 경제 및 기술 협정》을 반대 배격하였다는 리유로 수 많은 청년 학생들을 《군사 재판》에 회부하여 처형하였다.

오늘 남조선 청년 학생들에게는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마저도 없으며 학원의 모리화를 반대하거나 수학 처지의 개선을 요구해 나서는 것마저 《포고령》 위반이라는 리유로 처형당하고 있다. 서울 경기 지구 《군사 재판소》에서는 악질 교원을 배척하여 나선 21 명의 중학생들에게 1 개월부터 3 개월까지의 징역을 언도하였으며 청주 대학생 6 명에게는 10개월부터 1 년 6개월까지의 징역을 언도하였다. 심지어 박 정희 도당은 학생들의 거동을 감시하며 그들의 활동을 억제하도록 학교 《당국》에게 지시하는 폭압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괴뢰 경찰로 하여금 학생들의 뒤를 따고 그들의 동향에 대한 뒤'조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 제국주의자들의 조종 밑에 군사 파쑈 분자들은 청년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권리까지도 완전히 박탈하고 있다.

가로 막힌 배움의 길

남조선의 청년들은 미제의 식민지 우민화 정책과 그에 아부하는 군사 파쑈 도당의 반동적인 교육 정책으로 말미암아 배움의 길을 박탈당하고 있다.

박 정희 도당의 반동적인 《대학 정비》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는 21 개의 대학이 강제 폐쇄되였으며 수백명의 교원들과 6,000 여 명의 대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추방당했다. 뿐만 아니라 파쑈 악당들은 《중고등 학교 및 대학에 관한 림시 조치법》 및 동 《시행령》을 조작 공포하고 금년도 국민 학교 졸업생중 약 295,000 명, 중학교 졸업생은 약 79,000 명, 고등 학교 졸업생은 약 70,000 명 도합 444,000 여 명이 《국토 건설단》으로 끌려나가 고된 로동에 시달리거나 미제의 값싼 대포'밥으로 끌려 나가고 있다.

일할래야 일자리도 없다

《직업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보다 힘들다》는 남조선 사회에서는 수많은 청년들이 직업을 구할 길이 없어 속수 무책으로 굶고 있다.

얼마전 대구시 내 교동에서는 창호라는 이름을 가진 한 청년이 어머니에게 보내는 유서 한 통을 남기고 저주로운 남조선 사회를 등지고 말았다. 그는 굶주림에 시달리다 못해 직업을 구해 보려는 일념으로 남조선 각지를 헤매면서 갖은 신고를 다 겪다가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객지에서 죽음의 길을 택하고 만 것이다. 그의 시체는 《몹시 여위여 있었으며》 《몇 차례에 걸쳐 피를 뽑아 판 흔적이 있었다》고 《령남 일보》는 전하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괴뢰군 제대자들의 생활 역시 비참하다.

남조선에서는 괴뢰군 제대자들만도 18만 명이 있는데 박 정희 도당은 제대 군인들을 《포섭 리용》하기 위하여 《군사 원호》의 미명 하에 《정착 상업 자금》을 대부하여 《취직을 보장》 하겠다고 떠들어 왔으나 어느 하나도 해결한 것이 없다. 이리하여 오늘 다수 제대 군인들은 실업과 기아 상태에서 신음하다 쓰러지고 있다.

남조선 농민 청년들의 생활도 비참하다. 전라북도 김제군 진봉면 가실리에 살던 최 재순 청년은 적은 땅뙈기에 얽매여 지주의 가혹한 착취를 당해 가며 살아 오다가 더는 살아갈 길이 없어 극심한 생활고를 비관하던 나머지 지난 6월 17일 칼로 배를 가르는 비극을 산출하였다.

미제 강점하의 남조선에서는 생활의 파탄과 절망이 빚어내는 참극이 각 계층 청년들 속에서 날로 더욱 늘어가고 있다.

× ×

오늘 남조선 청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불행의 원인은 미제의 남조선 강점에 있다. 때문에 그들은 미제의 식민지 정책과 민족적 멸시, 조선 인민에 대한 학살 만행을 규탄하며 박 정희 군사 파쑈 악당의 악랄한 폭압 조치를 반대하여 투쟁의 불'길을 계속 높이고 있다.

지난 6월 고려 대학교, 서울 대학교 학생들과 대구 대학 학생들은 조선 인민에 대한 미제의 야수적인 《린치》 살인 만행에 대한 민족적 울분을 참을 수 없어 반미 투쟁에 분연 궐기하였으며 《결의문》 《행동 강령》 등을 발표하고 교문을 박차고 나가 《미 공보원장 나오라》고 웨치면서 시위하였으며 경남 거창 농업 고등 학교, 강원도 춘천 고등 학교, 부산의 경남 상업 고등 학교 등의 학생들이 《공납금》의 대폭 인하와 악질 교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동맹 휴학을 단행한 것을 비롯하여 학생들의 투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미제가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 정책을 감행하고 있고 그에 아부 추종하는 박 정희 군사 파쑈 도당의 학정이 계속되는한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불행은 결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미제를 하루 속히 이 땅에서 몰아내자!

숨은 원쑤



맹 동 섭

이 이야기는 결코 그 어떤 소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고향(함남 고원군)에 살던 악착한 지주 조 덕수에 대한 이야기로써 불과 10 년 전에 있은 일입니다.

이 한 토막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전복된 착취 계급들이 어떻게 옛 제도를 복귀 할려고 망상하며 지주란 얼마나 악착한 본성을 가진 놈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

1953년 봄, 이 땅에서는 미제 침략자들을 격멸하기 위한 성스러운 싸움이 련일 계속 되고 있었다.

내가 살던 고원군 두메 사람들도 적기의 맹폭 속에서 날마다 발갈이를 다그치고 있었다.

전선과 후방이 온통 하나로 되여 들끓어 번졌다.

이런 때 우리 마을의 옛 지주였던 조 덕수의 집에서만은 정상이 아닌 생활이 흐르고 있었다.

덕수의 첩이였던 월순이네 가마 목 밑에는 《승냥이 굴》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길다란 몸털이 부수수한 《승냥이》 한마리가 살고 있었다.

덕수는 벌써 이레째나 이 땅굴 속에 배겨 있었다. 그는 오늘도 자기의 굴 속에 번듯하게 누워서 천정을 물끄러미 쳐다 보면서 가진 잡념에 잠겨 있다.

밖에서는 봄이 바야흐로 무르익어 가고 꽃이 한창 피건만 이 컴컴한 굴 속에서는 신선한 한홉의 공기마져 마셔 볼수 없었다. 그는 악에 바쳐 눈을 데룩거리고 이'발을 빠득빠득 갈군하였다.

《에익 빌어 먹을…그렇게도 손꼽아 기다리던 진달래는 벌써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피였는데…미군은 왜 아직도 안들어 온담…》

그는 구석에 있는 체경을 들어 자기의 몰골을 비추어 보았다. 흡자 옛말에 나오는 물 귀신처럼 길다란 머리털, 백지장 같이 재'하얀 얼굴, 퀭한 두눈, 조금만 다쳐 놔도 매디매디가 똑똑 떨어져 나갈 것만 같은 앙상한 손가락들…그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원 언제나 이놈의 신세를 면하고 밝은 해'빛을 한번이라도 본담.)

그는 눈을 스르르 감았다. 그러면 또다시 그가 이 굴 속에서 몇천만번 되풀이한 환영이 눈 앞에 얼씬 거렸다.

조 덕수, 그는 해방 전까지 이곳 안팎 마을을 쥐락펴락 하는 지주였었다. 젊어서 어느 한때는 일제의 주구로 군청 서기로도 드나들었고 도매 상업도 하였다. 그가 30여 정보의 땅을 살때까지 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산을 털리우고 피눈물을 흘리며 북간도로, 일본으로, 삼수 갑산으로 갔던 것인가? 덕수는 농민들을 더 가혹하게 착취하기 위하여 자기 집에 《대마도 망종》이란 별명을 가진 서울 망나니를 고용해다 놓고 찍하면 소작인들을 매질하였다. 지어는 매년 섣달 그믐께가 되면 《특별 장부》를 만들어 놓고 작인들께서 되물을 받아 삼켰는데 그런 때 그 되물이 적다거나 시시하면 그것을 구실로 사정없이 땅을 떼내군 하였다. 그놈의 땅 매 쪼각마다에 실로 우리 부모들의 피땀과 원한의 눈물이 얼룩졌었다.

그는 본처를 내쫓고 서울서 기생하던 월순이란 녀자를 첩으로 데려다 놓고 호화 방탕한 생활을 하였으며 자기 집 개에까지 금 이'발을 해 씌워 놓고는 오는 사람들마다에게 자랑을 하는 놈이 였었다.

본래부터 예수교의 신자이던 그는 해방후 서울에 있는 선교사 스미스를 제 할애비 처럼 믿고 그와 비밀히 내통하였고 자기의 전처에게서 난 아들 용구를 서울에 보내여 간첩 임무까지 맡게 했었다. 그놈은 하루 빨리 전쟁이 일고 미군이 북조선으로 쳐들어올 것을 학수 고대하고 있었다.

일시적 후퇴의 어려운 시기에 이놈들은 완전히 제 본성을 드러 내였다.

그때 덕수는 《자치회장》을 했었고 아들 용구는 《면 치안 대장》이 되였다. 놈들은 당시 이 지방에 주둔한 미군 중위 헨드빌의 사촉하에 《대동회》 《멸공단》 《한청》 등 반동 단체를 조직하고 그 당시 밀령에서 빨찌산 활동을 하던 세포 위원장 김 석순의 할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자들을 잔인하게 학살 하였다.

놈들이 질러놓은 불'길이 하늘을 만질듯 타오르는 집, 그 불'길 속에 놈들은 세포 위원장의 나어린 누이동생 옥순이를 불에 집어 넣어 죽였고 그의 어머니와 할아버지를 마을 앞 나무 앞에서 총살 했던것이다.

그러나 이 추악한 인간 백정들에게도 드디여 복수자들의 무서운 징벌이 내리고야 말았다.

1950년 10월 하순 어느날… 락동강 계선에서 후퇴하던 인민군 부대와 빨찌산 부대들은 긴밀한 협동 작전으로 놈들의 소굴을 공격하였다. 놈들의 소굴은 불과 20분도 못되는 사이에 진압되였고 덕수의 아들 용구도 인민 복수자들의 서리어린 총창에 의하여 처단 되였다. 그때 구사일생으로 사경에서 빠진 덕수는 그후 패주하는 미군을 따라 원산까지 갔으나 복새통에 배를 얻어 타지 못하고 며칠후 밤'길을 타면서 다시 자기 집에 기여 들었다.

그리고는 소여물 가마목을 막은 후 거기에 깊숙한 굴을파고 들어 앉아 어서 미군이 다시 온다는 《진달래꽃》 시절을 기다리는것이다.

그러나 벌써 진달래 시절은 두번씩이나 맞았건만 그렇게도 고대하던 미군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새 덕수의 심경은 미쳐날것만 같았다.

2

극히 우울한 심경 속에 나날을 보내는 덕수가 굴 속에서 하는 일이란 매일 아침 화투를 가지고 자기의 신수점을 쳐보는 일이거나 어서 미군이 들어 와 달라고 하느님에게 꿇어앉아 기도를 드리는 따위의 일들이였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의 무료한 시간들을 메꿀 수는 없었다. 그러던 차에 그는 아주 좋은 궁리를 해냈다.

어느날 그는 처 월순을 불렀다.

《어데가서 역삼을 좀 구해오우.》

《아니 그건 어째서요?》

《글쎄 용처야 차차 알게 되지 않으리, 어서 구해 오기나 하우.》

…이렇게 하여 역삼을 구한 덕수는 굴 한켠 구석에 놓여 있는 보자기를 풀었다.

그것은 덕수의 옛날 토지 문서였다. 토지 개혁 때 가만이 주'추돌 밑에다 파 묻었던 것을 후퇴 때 파 내였던 것이다.

그는 원산으로 도망 칠때에도 이 문서 쪼각들만은 보자기에 싸서 둘러 메고 갔고 지금은 잠잘 때 조차 그것을 베고 잤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검은 보자기를 풀어 헤친 후 그것을 한장 한장 뒤졌다. 그의 눈앞에는 또다시 지난날이 얼씬얼씬 거렸다.

<으흐흠…이게 글쎄 어떤 보물단지라구…에…구룡포 앞 논 11마지기라…이건 소화12년에 김 인삼에게서 뺏아 낸거지, 이건 차 서방의 땅이였었구…그땐 경찰두 모두 내 편이구 지어 술'집 계집년까지 전부 녹아 붙지 못해 애쓰더니…》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이놈은 또다시 이를 빠득 빠득 갈았다.

그날부터 그는 그 땅 문서들을 찢어서 역삼에다 하나 하나 말아 싼 후 조신날을 꼬기 시작 하였다.

(이렇게하면 이 귀중한 보물을 건사하기도 좋지, 그냥 보따리채로 가지고 있다가는 어느

땐가는 들키워 압수 될수도 있지않겠는가!)

물론 그가 초신 삼기란 난생 처음이였지만 다시 돌아 오지 않을 옛 제도를 꿈꾸며 근기 있게 이 일을 해 나갔다.

《지금은 이게 비록 초신이지만 때가 되면 쌀 떼미로 금덩어리로 된단 말이야…어서 빨리 삼자》

그런 때면 모진 흥분 때문에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까지 하였다.

드디여 덕수는 초신 세 켤레를 삼았다. 그중 제일 큰 것은 자기 것으로써 1등 옥답에 해당한 토지 문서를 넣었고 제일 작은 것은 첩의 몸에서 난 아들 용선의 것으로 중질 정도의 땅 문서를 넣었고 안해의 것으로는 기중 하질 정도의 땅 문서를 넣어 삼았다.

그가 신 삼기를 끝낸날 굴 속으로 안해가 용선을 안고 들어왔다.

덕수는 안해에게 세 켤레의 초신짝을 내 놓으며 말했다.

《여보, 이게 뭐인지 아오. 쌀'떼미고 금'떼미요. 이렇게 척 초신으로 삼아 놓으면 절대로 발견될 념려가 없소. 우리가 죽은 후에라도 저애에게 물려 줍시다.》

그는 용선의 옷고름과 등 뒤에 초신짝을 매달아 주면서 흐뭇이 웃기까지 하였다.

안해도 그를 따라 웃다가 갑자기 얼굴을 흐리며 말했다.

《여보…큰일 났어요. 지금 저는 태기가 있는 것 같애요》

《뭐 태기라구?》

덕수는 이렇게 말하면서 능글맞게 웃었다.

《원 당신에겐 걱정도 팔자요. 이 북새판에 누가 그걸 알겠소?》

둘이는 한참동안 수작하다가 헤여졌다. 안해가 굴에서 나간후 덕수는 몹씨 기분이 흐뭇하여 자기가 삼은 신을 구석 깊이 간수하였다.

(하루빨리 미국 어른들이 들어오고 옛날같은 제도가 다시 섰으면…)

3

어느날 집 앞에서 개가 요란하게 컹컹 짖었다. 덕수와 안해의 간이 콩알만해졌다.

얼마후 행군해 가던 지원군 전사들이 들렸다. 그들은 물통에 물이 떨어져서 더운 물을 얻으며 들렸다고 했다.

안해는 그제서야 마음을 놓았다.

지원군 전사들은 마루에 걸터 앉아서 쉬였다.

그들의 손에는 연분홍 진달래가 쥐여져 있었다.

그들은 용선을 보고 귀엽다는듯이《때—때…》하고 손을 흔들었다.

지원군 전사들은 용선에게 과자랑 진달래꽃이랑 쥐여 주었다.

이 일을 몹씨 자랑하고 싶었던 용선은 소물가마 목에 뛰여가서《아빠—아빠》하고 부르며 야단쳤다. 덕수의 안해 월순은 가슴이 철렁하였다 .

바가지의 물이 부뚜막에 쏟아지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지원군 전사가 그것을 보고 웃으며 물이 쏟아진다고 하였어야 월순이는 정신을 차렸다.

이때 땅굴 속에 있던 덕수의 가슴은 더욱 선뜩하였다.

그는 용선이가 부르는 아빠라는 소리를 듣고《이젠 끝장이로구나》하고 생각하면서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품고 있는 칼까지 꺼내들었다.

그는 월순이가 일 없다는 신호로 여물가마를 세번 똑똑 두드릴 때에야 안도의 숨을《후—》하고 길게 쉬면서 이마의 땀을 씻었다.

며칠 동안은 덕수의 머리에 진달래꽃을 쥔 용선의 모습과 《아빠》라는 목소리가 뒤범벅이 되여 떠나지 않았다.

어떤때는 꿈에까지 그 모습이 얼른거렸다.

덕수는 이것이 자기를 죽이는 환영과도 같이 생각되였다.

《지금은 아빠하고 부르지만 이제 세월이 흐르면 저놈의 혀는 아버지라고 부를게 아닌가! 그때는 저놈이 아차 실수 한번 때문에 나도 마지막이 될른지 모르지》

그는 중풍에 걸린 사람처럼 몸을 떨었다. 그리하여 덕수는 자기의 더러운 목숨을 연장하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마저도 죽일 생각을 했던 것이다.

세상에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이 애기들을 기르면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아빠》라는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어디 있으랴! 어린 것들이 자라나다가 처음으로 부르는 《아빠》라는 살뜰한 소리, 세상의 그 어떤 유명한 천만가지 악기인들 어린애들이 어버이를 부르는 그렇게 살뜰한 소리를 낼수는 없으리라!

그러나 승냥이 덕수만은 오직 자기가 바라던 옛제도를 복귀하는 그날을 위하여 초보적인 의리도 도덕도, 잔인하게 짓밟고 자기 아들이 《아빠》라고 불렀다하여 그를 죽일 용단을 내렸었다.

4

어느 깊은 밤…

덕수는 안해가 야간 작업을 나간 틈을 타서 잔악한 손아귀로 아들의 목을 눌러 죽였다.

어린 것은 죽으면서도 제 애비를 말똥하게 쳐다보며 《아빠!》하고 부르짖었다.

덕수는 그 시체를 뒤울안에 내다 묻었다.

새벽녘에 일터에서 돌아온 안해에게 그는 간밤에 용선이가 급병으로 죽었으니 아무말도 말라고 협박 했었다.

며칠후 리에는 덕수의 아들 용선이가 갑작병으로 죽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월순이가 자기들의 정체를 감추기 위하여 펼쳐 놓은 소문이였었다.

그러던 차에 조선 인민의 력사적인 승리로써 정전이 되였다.

미군이 무릎을 꿇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덕수는 주먹으로 땅을 치며 한탄하였다.

이제는 하나님에게 기도드릴 힘도 없었다.

《난 이젠 전쟁까지 끝났으니 정말 죽었구나!》

그는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으며 벽을 그러안기도 하고 땅'바닥을 뚜드리기도 하였다. 지어 자살하려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원래가 용렬한 놈인지라 정말 죽지는 못했다.

그러던 차에 덕수는 안해를 통하여 평양에서 건설이 한창 진행된다는 것을 알았다.

(암만해도 여기에서는 장기간 배겨 있을 수도 없으니 차라리 그곳에 가자……그곳에 질서가 잡히기 전에 가서 성명도 고치고 취직도 하고 신임도 얻은 후 수걱수걱 일하면서 때를 기다리자…)

그런데 이번엔 처 월순이의 몸에 밴 애기 일이 걱정되였다.

(허 거참…미군이 다시 쳐들어 온후에 낳을줄 알았더니…원 이젠 어떻게 한다. 배는 점점 불러가고 만약 재로 낳는 애가 내얼굴을 닮았다면 그때엔 어떻게 한다).

덕수는 앞이 캄캄하였다.

순간 덕수의 머리에는 자기가 하느님처럼 숭배하는 미국 놈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렇지 스미스나 미국 장교 핸드빌씨는 하느님의 충실한 아들이 되려면 <용감성><잔인성>을 겸해야 한다고 하지않던가! 한살짜리 어린것을 구두'발로 밟아 죽이고서도 태연하던 그들…그렇다<나>를 위하여서는 그 모든 것을 서슴치 말아야 한다. 내가 있어야 안해도 있고 아들도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승냥이는 어느날 밤 끝내 자기의 안해마저 칼로 찔러 죽였다.

그렇다. 이 야수는 결코 인민의 눈을 피할 수가 없었다.

오래 동안 그의 안해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오던 인민들과 내무원, 부락 자위대원들에 의하여 지주 덕수놈은 살인 현장에서 체포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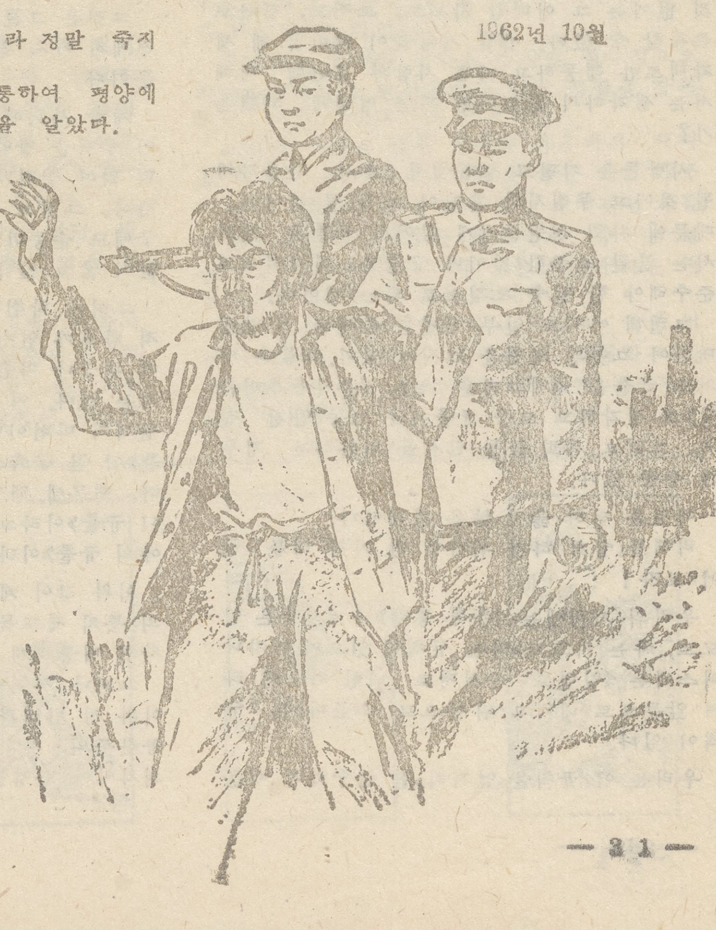
허리까지 내려온 긴 머리털, 우멍한 눈확 속에서 번뜩거리는 두눈…

그의 몰골은 말 그대로 가장 흉악한 짐승이였다.

그리고 그 짐승의 괴춤에서는 세 켤레의 초신이 나타났다.

그가 오매에도 념념 불망하는 옛제도를 찾으려고 어리석은 야망이 신날 마다에 오리 오리 담겨 있는 그 초신이……

1962년 10월



자각적 규률

최 원 종

자각적인 높은 규률성— 이것은 공산주의자의 고상한 품성의 하나이다.

규률이란 사회 성원으로써 살며 행동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생활하고 활동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 어떤 사회, 어떤 조직, 어떤 집단이건 그 성원들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일정한 요구와 행동 규범, 규률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의 개체 생활에도 일정한 규률이 있다. 이것 없이는 그 어떠한 사회도, 조직도, 집단도 존재할 수 없다. 만일 사람들이 제마끔 제 생각대로만 행동하고 다른 사람과 집단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들은 기필코 생활에서 호상 충돌하게 될 것이고 무질서와 혼란이 조성 될 것이다. 때문에 사회 성원들에게 있어서 규률은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것이며 규률은 자각적으로 준수해야 할 필수 조건으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청년들 중에는 규률에 대하여 그릇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마치도 규률을 《시끄러운 일》, 《부자유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로동 규률이나 로동 안전 질서, 그리고 사회 공동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것은 전혀 옳지 않은 견해이다.

리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한 가지 례를 들어 보자!

우리의 거리에는 《우측 통행》과 《사람은 인도로, 차는 차도로》라는 규칙이 있으며 기차나 뻐스에는 《일렬로 순서대로 내린 다음에 타며 앞문으로 내리고 뒤'문으로 오른다》는 규칙이 있다.

우리는 이 규칙을 엄격히 잘 준수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자유스럽게 거리를 다니며 또 려행을 한다. 만일 이런 규칙이 없거나 그것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거리는 혼란에 빠지고 사람들은 한 걸음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없으며 걸음마다 충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구속이 어디 또 있겠는가!

때문에 우리는 규률은 곧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그것은 질서와 규률이 없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질서와 규률이 존재하는 데서만 있는 것이다. 자기의 자유를 참으로 귀중히 여기는 청년들은 규률을 존중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규률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를 사랑하고 수호하는 사람인 것이다.

높은 규률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은 규률에 대하여 어떤 《구속》도 《부자유》도 느끼지 않는다. 왜냐 하면 우리의 사회주의적 규률은 사회주의 건설을 순조롭게 하며 집단과 개인의 통일적 리익과 념원이 반영되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일부 청년들은 규률이 마치도 《부자유》스럽고 《시끄러운 일》로 생각되게 되는가!

그것은 그들이 낡은 사회의 규률에 대한 편견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급 사회에서는 한 줌도 못되는 착취자들이 주권을 장악하고 인민 대중이 저들을 배불리 먹여 살리게 하기 위하여 고역하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착취자들의 그 어떤 부당한 요구에도 순종하며 죽으라면 죽고 굶으라면 말없이 굶고 앉아 있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착취자들의 이와 같은 부당한 일방적 강요가 인민 대중에게 납득될 리는 만무하며 더구나 마음이 내켜서 자각적으로 준수될 리는 없다. 여기에는 불피코 강제 수단이 동원되기 마련이며 인민 대중에게 있어서는 《규률》이 곧 구속으로, 부자유스러운 것으로 된다. 때문에 레닌은 노예 제도의 규률을 《몽둥이 규률》이라고 불렀고 자본주의 규률을 《기아의 규률》이라고 불렀다.

이와 같이 계급 사회의 《규률》은 착취 계급의 통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착취 대중에게 강요되는 《규률》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규률은 이와 정 반대되는 내용을 가진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규률은 전체 인민의 의사이며 반영인 만큼 거기에는 그 어떠한 강제적 성격도, 구속도 없는(물론 사회주의 하에서도 극소수의 프로레타리아 독재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례외이지만) 완전히 자각적인 규률이다.

그것은 사회주의 하에서의 질서와 규률은 인민의 공동적 리익의 표현이며 개인과 집단의 리해 관계가 불가 분리의 통일을 이루고 있는 데 있다.

때문에 사회주의적 규률의 특성—그것은 철두철미 자각적 규률이라는 데 있다. 그러면 자각적 규률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어떤 강압이나 처벌이 겁나서 규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규률 준수를 자기의 고상한 의무로 인식하고 자립적이며 자원적으로 규률을 지켜나가는 것을 말한다.

자각적 규률은 어디까지나 규률 준수의 필요성과 규률의 본질에 대한 깊은 확신에서 산생되는 것이며 또한 혁명 사업과 자기 행위에 대한 높은 책임성을 가지는 데서 산생된다.

때문에 사회주의 하에서 청년들이 로동 규률이나 로동 안전 질서, 그리고 사회 공동 질서를 자각적으로 준수한다는 것은 혁명과 인민의 리익에 대한 깊은 관심과 높은 책임성의 표현이며 이것은 곧 고상한 공산주의 도덕 품성의 중요한 기준으로 된다.

만약 우리 생활에서 어떤 청년이 사회 질서와 규률을 잘 지키지 않으며 비판과 충고를 받아도 시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고상한 도덕 품성이 결여된 표현이며 그의 머리'속 한 구석에는 의연히 낡은 사회의 편견과 개인주의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규률은 사회와 조직, 집단 생활을 위한 필연적 요구이며 그 사회 성원들에게 있어서 의무로 된다.

만일 청년들이 혁명 과업 수행에서 자각적이며 강철같은 규률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혁명 대렬의 사상 의지 및 행동의 통일은 보장될 수 없으며 결국 그것은 원쑤들과의 싸움에서나 사회주의 건설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따라서 혁명 위업에 그만큼 손실을 주게 될 것이다.

자각적인 규률의 준수—이것은 또한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어디 있는가를 옳게 리해하는 것 만으로써는 부족하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실천 행동에 구현되여야 한다.

알고 있는 도덕적 원칙들이 일상적으로 행동에서 구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며 행동에서 실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천과 관습이 필요하다.

그러기에 청년들은 일상적이며 의식적인 노력으로 규률 정신을 배양하며 항일 유격대원들의 혁명 규률에 대한 높은 자각성과 강철같은 규률 정신의 모범을 배워 꾸준히 자체 수양을 해야 한다.

항일 유격대원들은 자각적 규률의 훌륭한 모범을 이룩하였다. 항일 유격대원들은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그 어떤 사소한 규률 위반이라도 용서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깊이 뉘우치며 가슴 아파하고 또 스스로 그 결함을 고치기 위하여 부단하고도 완강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강력한 혁명적 규률과 높은 자각적 규률이 안바침됨으로써 항일 유격대는 15 여 성상 간고한 투쟁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마침내 일제를 타승할 수 있었다.

청년들은 조직과 집단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하며 민청원들은 민청 생활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일부 청년들 가운데서 때때로 대중의 눈 앞에서는 곧 잘 규률 있게 행동하는 것 같으나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가끔 규률을 위반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우리는 결코 이런 동무들을 자각적 규률을 준수하는 청년이라고 말 할 수 없는 것이다.

청년들은 부단한 수양과 노력으로 언제 어떤 곳에서나 또 어떤 경우나를 물론하고 항상 자각적인 규률을 준수할 수 있게 준비되여 있어야 한다.





리 정 암과 연안산성 싸움

박 경선 김 형천

1595년, 일본 오랑캐들이 연안성에 첫 발을 들여 민 것은 임진 조국 전쟁이 발발된지 석달 후이였다. 조국 전쟁의 타번지는 불'길 속에서 이 나라의 모든곳, 모든 인민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연안성 인민들도 의분에 떨쳐 일어 났었다.

임진 조국 전쟁에서 유명했던 연안성 싸움은 의병 대장 리 정암의 투쟁 사적과 결부 되고 있다.

리 정암은 호(號)를 사류재(四留齋), 자(字)를 중훈(仲薰)이라 불렀다.

그는 1541년 8월 18일 서울 한빈한 량반 리탕중의 둘째 아들로 태여났다.

리 정암은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였는데 이미 5세에 공부를 시작하여 여덟살에는 문장을 지였다고 한다.

열 세살 나는 해 어느 하루 그는 동리 아이들과 함께 무과(武科) 시험장에서 무예를 구경하고 있었다.

아이들을 둘러보던 시험관이 그들에게 글'자를 골라 주면서 시를 한귀씩 지여 보라고 하였다.

그러자 아이들은 모두 얼굴을 붉히면서 뒤'걸음을 쳤다. 그런데 이때 리 정암이 앞으로 한 발'자국 척 나서면서 류창한 목소리로 한 글'귀 시를 읊었다.

그 시 내용이 어찌나 훌륭했던지 이날 시험관 이하 응시하던 여러 사람들이 경탄하여 입만 벌렸다 한다. 이것은 그가 어려서 부터 얼마나 총명 했는가를 말해주는 한가지의 실례에 불과하다.

그는 책만 잡으면 새벽 닭이 울어서야 자리에 누웠다고 한다.

그의 이와같은 꾸준한 노력은 이미 21세의 젊은 나이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 자리에 오르게 되였다. 이것은 그의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는 높은 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벼슬 자리에서도 리 정암은 언제나 착하고 의리에 맞는 정치를 하여 인민들로 부터 높은 신망과 존경을 받았다.

1572년 리 정암이 연안 부사로 있을때의 일이다.

그때 리 정암은 새로 부임 하면서 권세에 억눌려 억울한 루명을 쓰고있는 인민들을 보았다.

정암은 곧 명령을 내려 그들을 구원해 주었다.

이때 봉건 통치배들은 이를 기회로 그를 이모저모로 헐뜯었다.

이에 격분한 리 정암은 봉건 통치배들의 더러운 자리 다툼과 인연을 멀리 할것을 결심하고 흔연히 벼슬 자리를 내여 놓았다.

그가 부사로부터 그만 둔다는 소식을 들은 인민들은 집 주위를 에워 싸고 리 정암을 떠나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여 만류 하였다고 한다.

임진 조국 전쟁이 일어나자 리 정암은 나라와 인민을 버리고 도주하는 국왕 일행을 저주하면서 당시 개경(오늘의 개성)류수(留守)로 있던 동생 리 정형(李廷馨)과 함께 싸움을 맹서하고 개경에 남았다.

당시 봉건 정부는 림진강 방어에서 도원수(都元帥) 김 명원(金 命元)의 부대가 일격에 패하게 되자 한 응인(韓應寅)을 도 순찰사(都巡察使)로 파견하여 개경을 방어하게 하였다.

그러나 준비 없이 조직한 방어로써 진두력은 보잘것 없었고 군인들의 사기는 저락 되였다. 또한 한 응인은 전투를 잘 조직하지 못하여 아군의 패배는 이미 결정되여 있는 형편이였다.

리 정암은 개경에서 무모한 죽음을 당하기 보다는 차라리 원쑤들과 싸우다가 죽을것을 결의하고 동생 리 정형에게 《내 일찍이 연안 부사로 있을때에 비록 백성들에게 신망은 없었을망정 의병들을 일으켜 한 성이라도 지키면 죽은들 무엇을 한 하겠는가.》라고 다짐한 후 연안성을 향해 떠났다.

연안성에 이르니 부사 김 대정이란자는 도망하고 인민들은 산'골로 피난하여 성 내는 텅 비여 있었다.

리 정암이 연안성에 입성 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인민들은 물밀듯이 성으로 몰려들어 저저마다 연안성을 방어할 뜻을 알리였다.

그는 의병들을 모집하기 위하여《충성을 다하여 원쑤를 격멸하자!》는 격문을 발표하고 의병들을 모집 하였다.

이에 많은 의병들이 호응해 나섰다. 그 중에서도 장 응기(張應棋), 송 덕윤(宋德閏), 조 광정(趙 光庭)등 의병장들은 의병 수백명 씩을 거느리고 입성하였다.

그리하여 성 내에는 리 정암을 의병장으로하는 지휘부가 구성 되였다.

인민들의 두터운 신뢰에 의하여 무수한 사람들이 리 정암의 주위에 모여 들었다.

의병장으로된 리 정암은 이날부터 의병들과 인민들을 방어 준비에 착수시키고 성을 보수 정비 하는 한편 무기와 탄약을 마련 하였다.

연안성은 당시 도호부(현재의 군급)로써 성곽의 주위는 비록 5리 가량 되는 작은 성시였으나 군사—전략상 주요한 거점이였다.

그것은 해상에서 적에게 치명적 타격을 주고 있던 리 순신 장군 함대의 근거지인 전라도와 직접적인 련계를 보장하는 거점이였기 때문이였다.

뿐만아니라 연안성은 남으로 충청도, 북으로로는 서해안을 따라 국왕이 있는 의주를 련결하는 관문으로써 정부의 제일 생명선이였다.

이 생명선을 제압할 것을 흉책한 적장 흑전장정(黑田長政)은 황해도 일대의 왜적을 해주와 평산 두 고을에 집결하고 연안성을 함락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드디어 8월 28일 왜적은 준비된 총 력량을 동원하여 해주, 평산, 두 방향으로부터 연안성을 공격해 왔다.

이때 입성한지 불과 일주일 밖에 되지 않는 조건에서 의병 부대의 방어 준비는 몹씨 불충분 하였다.

성내 의병 수는 불과 500 명 내외였고 로소 전부래야 겨우 2,000명 정도였다.

게다가 총과 포로써 발 끝까지 무장한 적에 비하여 의병들은 겨우 활 밖에 없었고 그것도 200명이나 무장할 수 있는 정도였다.

그러나 침략하여 오는 적들의 공세에 대치하여 의분에 떨쳐 일어선 인민들은 남녀 로소 할것 없이 돌과 기와'장 흙덩이들을 날랐고 부녀자들은 가마와 솥을 뽑아다가 물을 끓이였다.

관청과 집집의 대문짝들과 다락들의 널판자들을 뜯어서 방패로 쌓으며 해묵은 검불들을 모우고 밤나무들을 찍어 홰를 만드는 등 온 성이 원쑤 격멸에 한결같이 일떠섰다.

원쑤들이 공격해오자 인민들은 한 덩어리가 되여 분전 하였다.

의병들은 활을 쏘고 인민들은 돌과 기와'장을 던지며 싸웠다.

지어 부녀자들은 끓인 물을 놈들의 머리우에 들씌웠다. 적들은 첫날 전투에서 패배 하였다.

이튿날 (8월 29일) 적들은 다시 성 보다 더 높은 3층 다락을 들여 세우고 그것을 리용하여 성안을 향해 발사하여 옴으로써 성한 모퉁이를 돌파하여 보려고 시도 하였다

그러나 의병들의 용감한 응전에 다락이 부서지자 다음에는 성을 파괴 할려고 날뛰였다.

적들이 성을 헐기 위하여 널판자를 등에 지고 성밑에 기여 들자 의병들과 인민들은 바위를 굴려 박살을 내였다.

그러나 적들도 만만치 않았다.

이번엔 긴 사다리를 만들어 성 우에 걸고는 까맣게 기여 올랐다.

의병들은 화살이 떨어지게 되자 몽둥이로 원쑤들을 짓뭉았으며 원쑤의 머리 우에 돌과 끓은 물을 들씌워 무리 죽음을 주었다.

성 밑에서 놈들의 비명 소리는 악마구리 끓듯 하였다.

놈들은 거듭되는 참패를 만회해 보려고 검질기게 달려 들었다.

정황은 점점 의병들에게 불리하여져 끝내는 사태가 위급 하게 되였다.

리 정암은 성한 집들을 헐어서 성 밖에 림시 포대를 설치하게 하고 매 포대 마다에 병사 두어 사람씩을 포치하여 적들을 측면으로 사격하게 하였다.

그러나 온 성이 생사 존망의 위기 일발한 순간 성내에는 변절자가 생겼다.

그것은 성을 버리고 도망해 갔다 끌리워 온 연안 부사 김 대정 이하 몇몇 량반 나부랭기들이 적의 포위에 위압 당하여 투항 할 것을 강박하여 나섰던 때문이였다.

그리하여 성안의 전투 사기는 일시적이나마 흐리여 졌다.

바로 이때 성 우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 가는 사람이 있었다.

리 정암이였다. 그는 좌우를 돌아 보며 목청 높이 웨쳤다

《만약 적이 성을 함락 한다면 곧 불을 질러서 나를 원쑤의 칼에서 면하게 하라!》끝까지 성과 함께 죽음을 같이 할것을 결심한 그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성루를 울리며 의병들의 가슴을 파고 들자 그의 불타는 조국애에 감동한 의병들과 남녀 로소 들은 눈물을 흘리며 원쑤격멸에로 뛰여 나갔다.

그리하여 이날 의병 부대와 성내 인민들은 수십차에 걸치는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끝내 성을 지켰던 것이다.

이 같이 북문에서 온 밤가열한 전투가 진행될 때에 적은 서문 방어에 틈이 난것을 알고 그쪽으로 기여 올랐다 이 위기 일발의 순간 수문장(守門長) 리대춘(李大春)은 창을 비껴 들고 적의 진로를 장승처럼 막아 섰다.

그의 기개가 어찌나 장했던지 원쑤들도 감히 범접 못했다.

이윽고 의병들과 원쑤들 간에는 육박 격투가 벌어졌다.

개미'떼 처럼 사다리를 타고 달려드는 적들을 향하여 성중에서는 불타는 장작들을 던져 요정을 내며 끓은 물과 불을 던져 적을 삶고 태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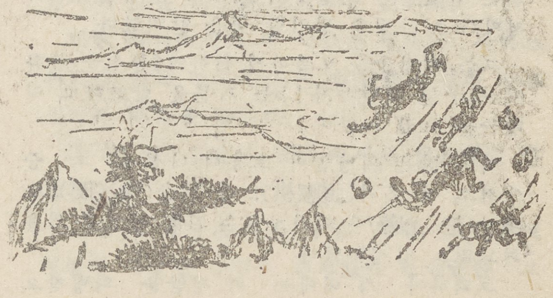
사위가 밝자 내려다 보니 성 밑에 쌓인 적의 시체는 헤아릴수 없이 많았다.

리 정암의 온 심장은 오직 나라와 인민에 대한 충성으로 들끓고 있었으니 이날 싸움을 결속 지으면서 그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흉악 무도한 적들이 앙심을 품었으니 오래지않아 기필코 또다시 침략해 올 것이다. 나는 오직 이 성의 존망과 함께 나의 목숨을 나눌 것이니 다시 무엇을 더 생각할것이 있겠는가! 너이들은 이 애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더는 생각지 말라!》

실로 리 정암의 이토록 깊은 조국애와 고매한 자기 희생성은 성내 인민들에게 있어서 산 구감이였다.

9월 1일에도 적들의 공격은 여전히 계속 되였다.



적들은 충차(衝車) 1,000여대를 앞세우고 성을 공격하여 왔다.

그러나 사기 충천한 의병들과 인민들의 림기응변한 방어에 부디쳐 그 역시 좌절 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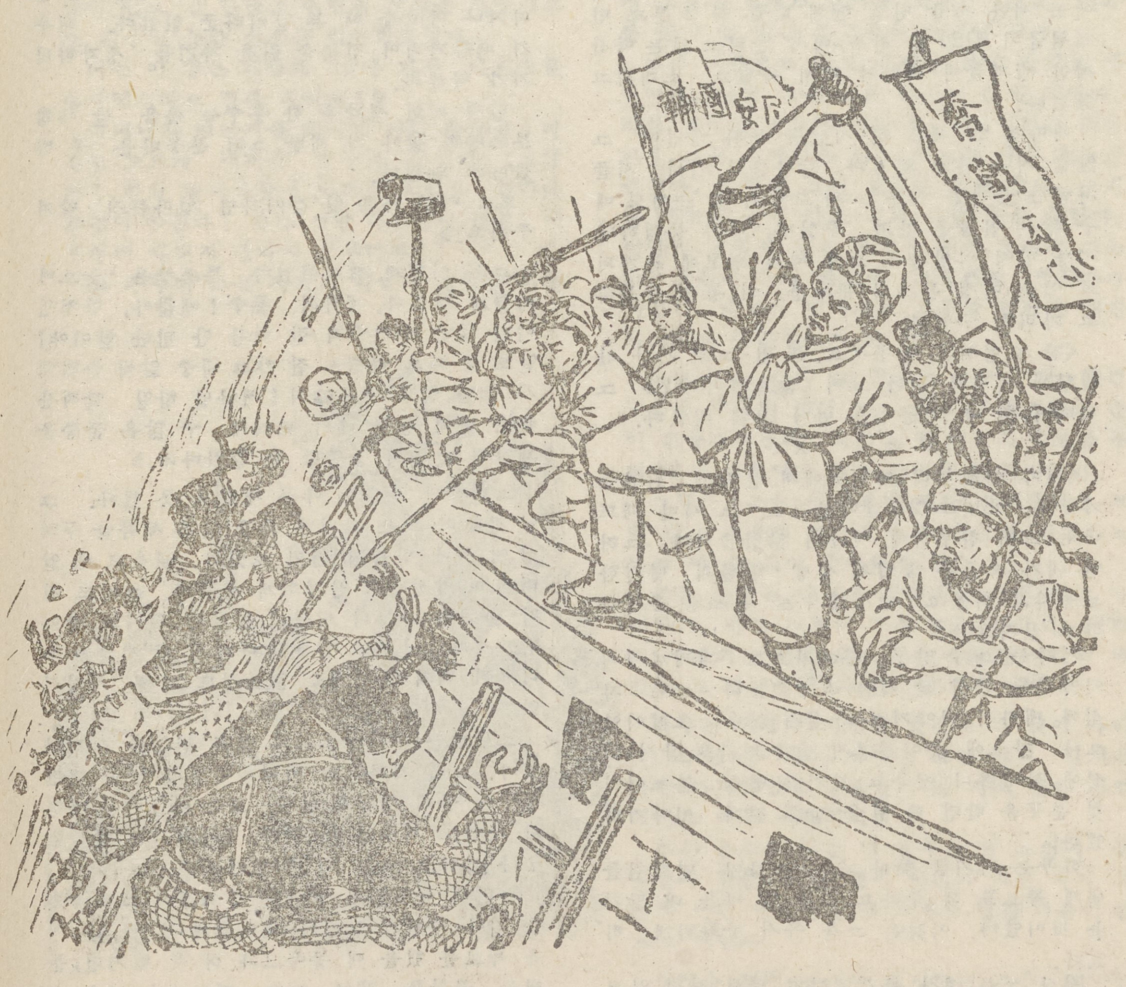
거듭되는 패배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적들은 또다시 사다리 10 여 개를 만들어 가지고 공격해 왔다.

성 우에서는 홰를 추켜 들어 성 밑을 밝히는 한편 연기를 피워 적들로 하여금 눈을 뜰수 없게 하였다.

이때 성 우에서는 눈을 부여 안고 돌아치는 적들을 향하여 북을 두드리고 함성을 올리면서 보복의 화살과 돌을 안겨 무리 죽엄을 주었다.

이리하여 집요하게 달려들던 적들은 9월 2일 아침 마침내 제놈들의 시체에 불을 지른후 도망 치고야 말았다.

초연에 그슬린 연안성은 아침 해'발을 받으며 불사신 같이 거연히 자태를 온세상에 들어내였으니 연안성—자랑찬 그 이름과 함께 조국의 촌토를 지켜 싸운 의병 대장 리 정암과 나라를 목숨으로 지킨 의병들의 이름은 이나라 인민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아로 새겨졌다.





그는 민청 분조장이 되였다

조직의 위임에 충실한 한 민청원의 이야기

황해 제철소 해탄 직장 벽보판 앞에는 많은 민청원들이 모여 서서 웅성대고 있었다. 거기에는 세탄 초급 민청 단체 배합 제 2 분조 민청원들이 《120일 전투》에서 올리고 있는 혁신적인 성과들에 대하여 대서 특필로 소개되고 있었다.

때마침 20 세를 갓 지났을 듯한 청년이 그 앞을 지나 가고 있었다. 알마춤한 키에 서글서글한 웃음을 띠운 그의 모습은 첫 눈에도 매우 좋은 인상을 안겨 주었다. 나와 동행하던 직장 민청 위원장은 그가 바로 벽보에 소개되고 있는 민청 분조의 분조장 최 룡수 동무라고 가리켜 주었다.

《참 모범적인 동무지요. 한 번 그의 지나 간 생활에 대해서 들어 보지 않으렵니까?》 그리하여 최 룡수 동무를 만나 보게 되였다.

× ×

《내가 언제부터 제철소에서 일하게 되였는가구요, 58년도 2월달이였지요. 그 때만 해도 나는 그저 철부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내가 오늘은 공업의 심장 황철의 떳떳한 로동자로 되였고 민청에서는 분조장 공작을 하고 있지요.》

기자는 그가 민청 분조장으로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는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표정이였으나 강요에 못이겼던지 얼굴을 붉혀 잠시 회상에 잠기더니 이윽고 자기가 민청 분조에서 첫 분공을 받던 때 일을 감회 깊게 이야기하였다.

하루는 자기를 찾아 온 분조장이 민청원들에게 독보를 해 주라고 신문 한 장을 내 맡기는 것이였다. 이것은 그를 몹시 당황하게 하였다.

사실 그는 생산 투쟁이라던 닷재 걸릴 일도 하루 이틀 새에 본때 있게 해 치우군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대중 앞에 나서서 이야기해 준다거나 독보를 해 본 일이라군 없었다. 더우기 떠듬거리며 신문을 읽을 자기를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밤새 이런 생각을 한 룡수는 다음 날 아침 분조장을 찾아 가 제발 그런 분공만은 못 하겠다고 말했다.

《그 대신 다른 일'감이라면 얼마든지 맡겨 주시요.》

그는 이렇게 제기했었다. 분조장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허허 룡수! 괜찮아, 민청원이란 일만 수걱수걱 잘 해선 안 된단 말이야! 일도 잘 하고 학습도 잘 하고 대중 앞에 출현해서 말할 줄도 알아야지! 지난날 항일 빨찌산들은 벌써 동무 나이 또래에 수 많은 군중을 교양하고 조직 동원할 줄 알았다네.》

그리하여 룡수는 아무 대답도 못 했다. 그날 밤부터 그는 자기가 분공 맡은 제목을 무려 십여 차나 반복해 읽어 보았다. 내용도 좀 알려지고 자신심도 일정하게 생겼다. 그래도 정작 출현하고 보니 어쩐지 마음이 떨리고 땀이 쥐여졌다. 너무도 흥분한 나머지 글'자들이 오리사리 해져서 제대로 읽는지도 모를 지경이였다.

그런데 이 때 누군가가 불쑥 질문을 제기하였다. 그런 것까지는 미리 예견하지 못 했던 룡수는 몹시 당황해 졌다. 그는 어물어물 하면서 대답도 제대로 못 했다. (이거 큰 망신했구나!)하고 그는 락심하였다.

그런데 독보회가 끝나자 분조장이 그의 손을 잡아 주면서 말했다. 《괜찮게 했어, 난 처음 독보를 했을 때 동무보다 더 못 했거던, 문제는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야! 자! 내 책을 하나 주지!》

분조장은 그에게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한 책을 주었다. 《앞으로 학습을 더 잘하오! 이것이 동무에게 주는 둘째 번 분공이라고 생각하오.》

그 날 일을 끝마치고 돌아 온 룡수는 그 회상기 책에서 《배움의 첫 걸음》을 몇 번이고 정독해 갔다. 1930년 대 투사들의 고난 어린 학습 장면을 읽는 그의 머리에는 언젠가 어머니가 자기에게 대하여 들려 주던 이야기가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왜정 때 너의 아버지는 한겨울에도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산에서 나무를 실어 내리는 품팔이를 하군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식사도 제대로 못 한 너의 아버지는 정신이 아찔하는 순간에 그만 커다란 나무 통구리와 함께 높은 벼랑에서 굴러 떨어졌단다. 그래서 종신 불구자가 되고 말았지. 그 후 아버지는 너를 끌어 안고 긴 한숨을 쉬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또 배우지 못한 신세를 한탄하였었다.

너는 이 좋은 세상에 돌아 가신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힘껏 배워라!》

어머니의 이야기를 회상해 가던 룡수는 자신도 모르게 머리가 수그러 들었다. (그렇다! 항일 빨찌산들에 비하면 오늘은 얼마나 조건이 좋은가! 내가 정말 바보였어, 에익! 이제부터 아버지 몫까지 공부하자!)

그 후부터 그는 자기의 학습에 정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지어 그와 같은 호실에 있는 동무들도 그가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 몰랐으며 또 새벽 일찍 호실을 나갔다가 아침 식사 시간이 거의 끝날 무렵에 돌아 오군 하는 그를 자주 보게 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룡수에게 손님이 찾아 왔다. 동무들은 그를 찾아 한참 돌아쳤으나 그를 합숙 내에서는 찾지 못했다.

한 동무는 혹시나 하고 공원 쪽에 가 보았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는 벤취에 걸터 앉아 골똘하게 책을 읽고 있지 않는가!

룡수는 머리를 썩썩 문지르며 말했다.

《새벽마다 이런데 와서 공부를 하면 정말 머리에 잘 들어 가거던, 그게 어느새 습관이 돼나서…》

그의 정치적 안목이 차츰 높아짐에 따라 민청 조직은 그에게 점차로 회상기 발표, 직관물 공작 등 힘든 분공들을 맡기여 갔다.

그가 처음으로 속보 공작을 분공 받았을 때 일이다. 난생 처음 글을 쓰자니 잘 안 되였다. 사실 글이란 말보다 얼마나 더 어려운 것인가! 그는 쓰다가는 찢고 찢고는 다시 철필을 들었다. 아침에 그의 동무가 뛰여 들어 오더니 룡수를 끌어 안고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어안이 벙벙해 있는 룡수를 쳐다 보면서 그는 《너 그런데 어느 사이에 그렇게도 명문가가 되였니, 속보가 멋지다고 모두들 밖에서 칭찬하느라고 야단들이야.》

그러나 그 순간 그 동무는 룡수의 방 한켠 구석에 수북히 쌓인 종이 뭉치를 발견하고 눈이 휘둥그래졌다. 그것은 한 제목의 속보를 무려 20 여 번씩이나 쓰고 곤치군 한 것이였다.

그렇다…그는 엊저녁에 직장 사무실에서 고박 밤을 새우며 조직에서 준 분공을 실행하느라고 애 쓴 것이 분명하지 않는가!

물론 룡수는 속보에 한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였다. 민청 조직이 주는 모든 분공에 대하여 자기의 정력을 쏟으면서 성실히 집행해 나갔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발전해 나갔다.

룡수는 이렇게 자신만 발전해 간 것이 아니다. 그는 동지들의 결함을 보면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하였고 그들을 교양 개조 하는 사업에서도 매우 적극적이였다.

그의 분조에 있는 김 동무는 왜 그런지 동무들과 휩쓸리기를 싫어 하는가 하면 자기 직업에 대한 영예감을 못 가지고 항상 마음이 들뜨고 있었다.

룡수는 민청 조직에 제기하여 그를 교양할

것을 담당하고 그의 침식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로 타일러 주었으며 로동에 대한 자신의 모범으로 그를 교양하였다. 여기서도 그의 완강성이 유감 없이 발휘되였다. 지어는 그가 생활 감정이 풍부하지 못한데서 오는 결함이 아닌가 생각하던 끝에 40 여 권의 문예 서적을 읽고 그 내용을 흥미 있게 이야기해 주었다.

알고 보니 김 동무도 문학 예술에 여간 취미가 아니였고 바로 그것 때문에 자기 직업에 대하여 들뜨고 있었다.

룡수는 여기에서 로동 계급이 된 영예와 로동을 하면서도 훌륭히 문학 예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활동으로 보여 주리라고 마음 먹었다. 그리하여 그의 문학 예술에 대한 완강한 학습이 시작되였고 얼마 있지 않아 재담, 촌극까지 쓰게 되였다. 김 동무는 이렇게 룡수의 꾸준한 노력으로 교양되였으며 훌륭한 민청원으로 되였다.

룡수는 일년 남짓한 어간에 몰라 보게 달라졌다. 정치적 식견이 넓어지고 당 정책을 무조건 집행하려는 혁명적 기질, 군중 공작의 능숙한 솜씨로 하여 동무들의 깊은 존경을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룡수는 민청 위원회로부터 민청 분조장의 공작을 수행할 위임을 받았다. 그 날 밤 룡수는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어떻게 한 두 사람도 아니고 19 명이나 되는 동무들을 내가 이끌고 나갈 수 있단 말인가! 그들 중에는 나보다 민청 생활도 오래 하고 로동 생활 경험도 많이 한 동무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할 수록 그는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벌써 그는 조직에서 준 위임에 대하여 첫 분공 때처럼 그렇게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그만큼 그는 정치적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그는 학습에도 더욱 열중하였고 휴식일의 대부분도 쉬지 않았다. 분조원들을 방문하거나 그들의 일'손을 도와 주는데 바쳤다. 매 분조원들의 성격과 특성에 맞게 생활을 보다 풍부한 정서와 랑만으로 끓어 넘치게 하기 위해 밤새워 연구도 하였다. 그는 서툰 솜씨나마 희곡도 쓰고 재담도 만드노라고 온근 밤을 밝히는 일이 드물지 않았고 그가 창작한 청년 기동 선전대 자료《우리는 1,211고지 용사다》는 직장 동무들의 절찬을 받았으며 동무들의 생산 의욕을 크게 고무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룡수는 황철을 근위대로 꾸릴데 대한 수상 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자기네 분조들을 언제나 당과 혁명에 충직한 전사로 교양하기에 힘을 기울렸다. 그들의 단합된 힘은 언제나 생산에서 계획을 넘쳐 실행하게 하였으며 《120 일 전투》의 최후 돌격선에서 유감 없이 발휘되였다.

그들은《8월 30일 청년 돌격대》를 조직하여 가지고 국내 탄을 도입하기 위한 투쟁에서와 설비 리용률 제고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웠으며 모든 배합기마다 붉은 별을 하나씩 쟁취하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테면 그들의 분조는 나무랄데 없는 분조로 되였다.

《기자 동무! 참말이지 나는 자신의 민청 생활을 돌이켜 볼 때마다 당과 조직이 주는 위임과 분공에 성실히 참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더욱 절실히 느끼군 합니다. 즉 우리가 분공에 대하여 충실하다는 것은 민청 생활에 충실함을 의미하며 자신을 더욱 성장 발전시키는 길이라는 걸 말입니다.

앞으로 저는 황해 제철소를 근위대로 꾸릴데 대한 수상 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저의 민청 분조를 더욱 튼튼히 꾸리며 120 일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룡수 동무는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끝 마치였다.

본사 기자

청년생활 소사전

달군 쇠의 빛을 보고, 온도를 안다

우리들이 보통 달군 쇠'덩이를 보고 인차 그의 온도가 몇 도인가를 알아 내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빛으로 온도를 알아 내는 데 비교적 숙련된 사람은 빛의 차이에 의해서 쉽게 그것을 알아 낸다.

즉 벌겋게 단 쇠'덩이가 어두운 붉은 빛을 내면 그것은 500~600도이며 붉은 빛이 밝게 비치면 600~800도, 황색을 내면 800~1,000 도, 흰 색을 내면 1,000~1,200도, 흰 색이 아주 밝게 비치면 그것은 1,500도 이상이다.

독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석 인 해



인간의 생애에서 청년기는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청년기는 보람 있는 삶을 누리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하게 복무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세련되고 사상 리론 수준을 높이며 훌륭한 도덕 품성을 갖추는 수양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들이 몸과 마음이 한 가지로 장성하는 청년 시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탐스러운 화원에 풍만한 꽃을 피우기 위하여 토양을 고르고 거름을 주며 병해충을 구제하는 일과 같다고 할수 있다.

우리 나라 청년들은 물론 제 때에 정규적인 교육을 받으며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교양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다 만족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가 독서이다. 독서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자체 수양의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다. 특히 공장, 농촌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인류의 자적이나 사상은 말과 기록, 그리고 실물로 후세에 전해진다. 그런데 말은 사라지기 쉽고 실물은 많지 못하다. 그러니 기록하는 글에 의존할 밖에 없다. 따라서 옛사람이나 오늘의 선구자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이나 래일의 전망을 보여 주는 내용을 담은 책을 읽는 일은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옳은 독서를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두말 할 것도 없이 정치 리론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맑스—레닌주의 고전을 많이 읽어야 할 것이다.

우선 김 일성 동지의 로작들을 심오하게 연구하여야 한다. 그것은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을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 인민의 생활의 지침이며 우리 혁명의 길을 등대처럼 밝혀 주는 강령이기 때문이다. 이와 아울러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학습하므로써 당의 고귀한 사상 체계를 배우며 불요불굴의 혁명 정신과 공산주의자의 도덕 품성을 체득하게 된다.

이러한 혁명 전통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와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인민들 속에서》 등의 책들은 우리에게 둘도 없는 생활의 교과서로 정신적인 량식으로 된다.

또한 청년들은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준비함에 있어서 반드시 과학 기술 지식과 기술 기능의 소유자로 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은 경제 운영에 대한 지식, 전문하는 일에 들어 닥쳐서 막힐 데 없는 지식을 갖출 뿐만 아니라 전공하는 방면은 다르다 하더라도 한개 문명한 청년으로서 가져야 할 과학 기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가 되여야 할 것이다. 청년들은 물리, 화학, 생리, 천문, 지리…등 자연 과학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한 책들을 많이 읽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치 사상적으로 무장되고 기술을 가지면서도 세상 물정에 밝지 못하고 인간이 어디라 없이 딱딱하고 인간성이 결여된 사람도 노상 없지는 아니하다.

어째 그리 되는가?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한가지로는 문화 예술적인 소양이 부족한 까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문화적으로 일하며 문화적으로 휴식한다는 말은 바로 우리 생활을 더욱 풍부하고 윤택하게 꾸리자는 지향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다름 아닌 청년기에 문화 예술에 친숙하며 문학 예술 작품을 널리 읽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년들은 우리 나라의 훌륭한 문예 작품들을 읽으며 감상하는 관습을 키워야 한다. 동시에 부르죠아 사상과 생활 양식을 고취하는 반동적 문예 작품을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그러면 독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독서하는 데 무슨 틀에 째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모으로 가도 서울에 가 닿으면 된다는 식으로 이것 저것 손에 닥치는 대로 탐독을 할 수는 없다. 자기의 수준을 고

떠함이 없이 무질서하게 진행되는 독서나 저속한 취미 본위로 진행되는 독서는 그 어느 경우나 다 자기 발전에 저해를 가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독서도 반드시 자기 수준에 맞게 계획적이고도 목적 의식성이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책을 옳게 선정하고 년간, 분기별 가능한 대로 월별, 주별로 독서 계획을 세워서 읽어 나가는 관습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들은 조직 생활을 하는 것만큼 민청 단체나 또는 직장, 부서에서 자기의 독서 계획을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실정에 맞게 이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그러되 될수록 필독 서적은 공통성을 띠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 하면 독서에서 호상 방조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책을 다 읽고 나서 합평이나 감상 모임을 조직할 때 의견을 교환하며 맹렬한 론쟁의 마당을 벌려 놓게 되면 실로 배움이 많을 것이고 서로 고무하게 됨으로 독서 의욕을 더욱 자극하게 될 것이다.

독서 계획 속에 신문이나 잡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드라도 이것을 제일 먼저 읽어야 한다. 거기에는 항상 당 정책이 반영되며 그때 그 때에 제기되는 중요한 기사들이 실려 있기 때문에 신문, 잡지의 내용을 모르고 보면 저도 모르게 현실에 암둔한 일'군으로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계획에 따라서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역시 책의 내용에 따라서 읽는 방법, 그리고 읽고 나서 처리하는 수법도 각각 다를 것이다. 가령 맑스—레닌주의 고전과 시나 소설 같은 문예 작품을 읽으며 처리하는 방법이 동일할 수는 없다.

처음부터 숙독하는 것이 좋은가? 한번 죽 읽고 내용을 기본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두번 세번 고쳐 읽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도 물론 각자의 관습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으나 중요하게는 책 내용과 목적에 따라 이 방법을 다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수상 동지의 로작이나 현지 교시, 당 정책 그리고 맑스—레닌주의 리론 학습에서는 매 구절을 놓고 깊이 연구하며 그 뜻을 리해하여야 자기의 살과 뼈로 될 수 있다. 즉 읽고 다시 읽어 가면서 그 진수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독서에서 중요한 것은—책을 읽은 다음에 자신이 총화하는 것이다. 읽은 내용을 다시 회상하고 깊이 사색하여야 한다. 어떤 것을 총화할 것인가? 우선 책에서 배운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지식은 무엇인가? 자기 사업과 생활에서 교훈으로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당면하게 실천에 옮길 것은 무엇인가? 책 내용에서 모를 문제, 긍정되지 않는 문제는 무엇인가? 등…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책에서 보고 느낀 점을 써 두는 것이 좋다. 감상록을 가져도 좋고 읽은 책 뒤'장에 백지를 끼우고 써 넣어도 좋을 것이다.

겸하여 이야기해 둘 것은 발취의 필요성이다. 사람의 두뇌에는 제한성이 있다. 읽는 그 순간에는 다 리해되는 것 같지만 얼마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 부분을 발취하며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해 가야 한다. 이런 학습장이 붙어 갈 수록 실천 행동에 안받침이 되는 지식이 축적되는 것이다.

기술 서적을 읽으며 처리하는 경우 역시 동일하다. 기술에 대한 리론적인 내용을 요령있게 발취하며 복습을 지속하는 데 그것은 실천에 옮겨지는 무게 있는 지식으로 축적될 것이다.

그러나 문예 작품의 경우는 다소 다르다고 본다. 특별히 창작이나 문학 연구에 뜻을 둔다면 모르려니와 문학 예술 작품을 통하여 인간 생활을 배우며 견문을 넓히며 풍부한 인간성을 키우려는 독자인 경우에는 리론 서적처럼 세밀한 발취 작업은 필요 없을 것이다. 읽어 가면서 그 내용에서 느낌이 있고 생활상 필요한 일들에 대하여 배우며 모범을 삼으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소설을 읽어 가면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성구나 어휘, 품명, 생활 풍습 기타 미처 모르던 지식과 마주칠때 그것을 그냥 넘겨 버리는 버릇이 붙고 보면 언제까지나 모르는 것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모를 것은 어떤 방법으로던지 알고 넘어 가야 자기 지식으로 된다. 그리고 아무리 취미 본위로 읽는 소설이라도 읽으며 생각하고 다 읽고 나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거기에서 반드시 그 어떤 교훈을 찾아야 읽는 보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많은 책들을 어떤 형태로 읽을 것인가. 가능하다면 한번 붙든 책은 끝장을 내고 다음 책으로 넘어 가는 것이 리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책만 읽고 있을 수는 없은즉 각자가 이를 합리적으로 조절해야 할 것이다. 짧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정신이 맑은 아침에 어려운 리론 문제에 대하여 공부하고, 피곤한 때 재미 있는 문학 작품을 읽는다든지 어쨌던 독서 능률이 오르도록 조절해 가면서 한 두 가지 책을 배합해 가되 지금까지 학습한 체계가 흩어지지 않게 주의를 돌려야 한다. 취미에 맡기여 이것 저것 집어 들고 읽다 중도 반단으로 집어 치우고 보면 아무런 소득도 없다.

끝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손에서 책을 놓지 말고, 지어 출퇴근할 때 뻐스 속에서도 무엇이던 읽는 습관을 붙여야 한다는 점이다. 날마다 이를 지속해도 한 해 동안에 적지 않은 책을 읽을 수 있다. 독서는 20 대의 청년기에 가장 능률이 나는 것인즉 때를 놓지지 말아야 한다. 또 글을 읽으면서 모르는 것은 몇 번이고 아는 사람에게 물어야 한다.

《아래 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 말라》는 옛말은 오늘에도 해당된다.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은 허물이 아니며《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라는 말 대로 진실성은 독서에 더욱 필요하다.

계획을 잘 세우고 어김 없이 그 대로 실천하며 제때에 총화해 가느라면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한 걸음 지혜는 높은 령마루로 올라 넓은 시야를 전망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자기 의사를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글 짓는 데 관심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아는 것을 론리적으로 가지는 것은 소유한 지식을 더 쓸모 있게 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조들의 금속 제품에서



고적들과 문헌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는 철기 시대가 비교적 빨리 발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나라 북부 지대에 많은 량의 철광석이 매장되여 있으며 특히 서해 지방에는 함원성이 좋은 갈철광과 적철광이 매장 되여 있기 때문에 련철법이 발전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삼국 시기에 와서 야금업이 급속히 발전했으며 선조들이 생산한 선철과 강철의 질도 매우 우수하였다. 현재까지 발굴된 고적들을 분석해 보면 고구려 시기에 선철의 생산량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실례로서 자강도 시중군 호남리에서 발견된 무쇠 도끼를 들 수 있는데 그의 화학적 조성을 분석한다면 다음과 같다.

원소명	함유량 (%)
탄소	4.31
유황	0.03
린	0.215
망간	0.3
규소	0.5

이와 같은 조성은 현대 야금학에서 얻은 선철과 류사한데 그중 망간과 규소의 함유량이 매우 높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선철 중에 망간과 규소의 함유량이 높다는 사실은 그때 야금에서 1,500도씨 정도의 높은 온도를 얻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의 야금술이 대단히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 단적인 실례로 된다.

선철 뿐만 아니라 련철과 강철도 수다히 생산되였고 그의 질도 매우 우수하였다.

봉덕사 종과 주조 기술



우리 선조들은 먼 옛날부터 금속을 녹여 여러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훌륭한 주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청동제 세형 단검이라던가 잔줄 무늬 거울 등은 이미 고조선 시대의 유물임에도 불구하고 금속 조직의 견고성과 그 형태의 아름다움으로 하여 이름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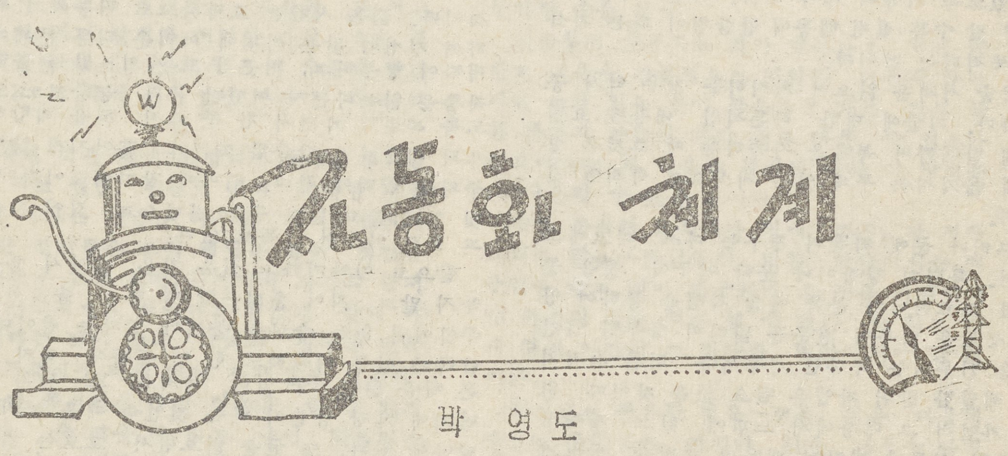
이와 같이 우리 선조들이 남긴 많은 금속 제품들 중에서도 봉덕사의 종은 그 겉 모양의 아름다움에 있어서나 크기에 있어서 일찌기 류례가 드문 훌륭한 유물이다.

신라 혜공왕 7년(771년)에 만든 이 종은 현재 우리 나라에 남아 있는 종들 중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꽃 무늬로 장식된 종의 한 복판에 선녀가 하늘로 날아가면서 꽃보라를 뿌리는 부각은 실로 그림으로도 그려 내기 어려운 복잡하고도 기묘한 하나의 화폭을 이루고 있다. 또한 통의 몸통이로 되여 있는 종의 고리 부분은 현대 주조술로써도 손쉽게 해결하기 힘든 정밀하고도 복잡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훌륭하게 만들어 냈다.

종의 밑 부분의 직경은 2.4 메터에 달하며 그의 두께는 26 센치나 된다.

사료에 의하면 이것을 주조하기 위하여 7.2 톤의 구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당시의 조건에서 이런 굉장한 종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 때 우리 선조들의 주조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였는가를 잘 알 수 있다.



박 영 도

생산 공정을 자동화한다는 것은 생산 공정에 사람이 직접 참가하지 않고 생산을 자동적으로 되게 하는 것, 즉 생산을· 저절로 되게 한다는 뜻이다.

완전히 자동화가 실현된 그런 공정을 한 번 생각해 보자.

수천 척의 지하에서 석탄이나 광석을 캐는 일, 용광로에서 쇠'물을 뽑아 내는 일, 집 짓는 일, 농사 짓는 일, 지어는 밥 짓는 일 등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기계가 하고 사람은 다만 그 기계들이 제대로 움직이는가를 감시나 하고 조절이나 한다면 우리의 로동은 그 얼마나 흥겨워지겠는가! 그리고도 제품은 폭포처럼 쏟아져 나올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생산 공정의 자동화는 결코 먼 장래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당에 의하여 오래 전부터 구상 설계되였고 이미 우리 나라 로동 계급과 기술자들에 의하여 실현되여 가고 있는 문제이다.

한 례로 흥남 비료 공장 질안 직장에 가 본 동무들은 《도대체 여기선 누가 비료를 만드는가?》하는 의문이 들 것이다. 사실 이 공장에서는 수십만 톤의 비료를 만들어 내는 훌륭한 기계들은 많지만 그 기계들을 다루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하고 찾아 보기 힘들 정도로 적다. 그것은 비료가 사람들의 《명령》을 잘 듣는 자동 기계들에 의하여 저절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례들을 2.8 비날론 공장, 황해 제철소, 2.8 마동 세멘트 공장, 성진 제강소, 평양 방직 공장, 룡성 육류 가공 공장 등을 비롯한 수 많은 기업소들에서 찾아 보게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자동화 체계란 대체 어떤 내용을 이루고 있는가? 우리는 이에 대한 리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일상 생활에서 가까운 실례를 들어 보기로 하자!

우리들이 부엌에서 밥을 지을 때 아무리 좋은 가마에 가스나 전기와 같은 편리한 현대적 열을 쓴다 해도 여전히 가마 옆에 서서 밥이 타지 않는가를 살피고 있어야 하며 불도 조절해 주고 밥이 다 되면 불을 끄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밥 짓는 과정을 자동화하면 스위치만 넣은 다음에 우리는 마음 놓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기계들이 열을 조절하면서 밥을 설지도 않고 타지도 않게 익힌 다음 스위치를 끄고 신호등이나 종으로 밥이 다 되였다는 것을 알려 주기 때문이다.

더 잘하면 아침에 직장으로 출근할 때 밥 짓는 기계에 《지시》를 주어서 직장에서 돌아올 몇 분 전에 자동적으로 스위치가 넣어져서 밥이 다 되겠금 할 수도 있다.

생산 공정의 자동화도 이와 마찬 가지이다. 2.8 마동 세멘트 공장에 가면 기차가 원료를 실어 온 데서부터 석회석 및 점토 운반, 분쇄, 소성, 마지막으로 제품을 포장하는데 이르기까지 중앙 사령실에 앉아서 직접 장악하고 움직이고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자동화가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해준다는 것을 쉽게 리해할 수 있다.

그러기에 자동화 체계의 내용도 사람에 비유해서 그를 분류할 수 있다.

즉 자동화 체계에는 사람의 감각 기관과 같은 역할을 노는 자동 검사 및 측정 장치가 있고 사람의 사유 기관과 같이 감각된 자료를 인식하고 사고하며 어떻게 생산 공정을 움직여야 되겠는가를 결심하고 《명령》을 내리는 자동 조절 장치, 그리고 사람의 손발과 같이 명령을 집행하며 이러저러한 조작을 수행하는 자동 조작 장치들로 되여 있다.

자동 검사 및 측정 장치는 온도계나 압력계 등을 비롯하여 생산 공정의 이러저러한 량들과 그의 변화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각종 측정 계기들로서 되여 있다.

여기에서 측정된 결과는 자동 보호 장치에 전달되여 생산 공정의 운영 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을 전기종이나 혹은 고동으로써 기대 운전공들에게 알려 줄 뿐만 아니라 그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까지 취한다.

례컨대 전동기에 전류가 정상적인 량을 초과하여 흐르게 되면 전동기를 태울 수 있다. 이러한 사고는 극히 짧은 시간(수십 내지 수백 분의 1 초)에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써는 이를 방지할 수 없다. 그러나 이때 자동 계전기는 즉시로 회로를 끊고 사고를 방지하여 자동적으로 전동기를 보호한다.

자동화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람의 사유 기관을 대신하는 자동 조절 장치이다.

자동 조절 장치는 생산의 수 많은 공정들에서 온도, 압력, 습도, 전압 등이 항상 규정된 상태 대로 보장되여 있게 하며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들이 임의의 요구 대로 변하게끔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논다. 이것은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나 제품의 질을 제고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놀게 된다.

례컨대 흥남 비료 공장 질안 직장에서는 암모니야를 합성할 자동 조절기가 질소와 수소를 항상 3:1의 비률로 자동적으로 혼합되겠끔 하여 준다.

다음으로 사람의 손 발과 같은 역할을 노는 자동 조작 장치는 자동 장치들이 이미 주어진 계획 대로 기계들을 차례 차례 동작시키면서 목적하는 제품들을 자동적으로 만들게 하는 역할들을 수행 한다.

례를 들면 대용량 전동기를 움직일 때 자동 계전기는 단추 하나만 누르면 전동기 축 베아링에 기름이 제대로 순환하게 하고 처음 움직이게 하던 저항을 점차적으로 떼여 정상적으로 운전을 보장하게 한다.

이상과 같은 자동화 체계의 내용들이 부분적으로나 혹은 개별적으로 실행되였을 때 우리는 그것을 생산 공정이 《부분 자동화》되였다고 하며 자동 신호와 보호, 자동 검사와 측정, 자동 조절과 자동 조작, 계산 행정 등에 이르기까지 자동화가 하나의 체계로 완전히 통일되였을 때 우리는 《종합적 자동화》가 실행되였다고 한다. 그리고 자동화 체계에서 기대들이 조정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보조적 장치가 더 필요하게 된다. 이것을 원격 조정 장치라고 부른다.

원격 조정 장치들은 그 사명들에 따라 원격 신호, 원격 검사, 원격 보호, 원격 조작, 원격 조절 장치들로 구분된다.

자동화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은 결코 신비로운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생산 공정의 자동화 체계를 이룩할 수 있는 모든 물질, 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꾸려지고 있다.

우리들은 7 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 운수, 체신부문들에게 우선 검사, 측정, 조절, 제품의 선별, 포장 작업과 신호, 련동 폐색 장치들을 자동화하여 분산 설치된 기계 설비들에 대한 원격 조작과 집중 조작을 실시하며 점차 보조적 작업까지도 포함한 종합적 자동화에로 이행하여야 한다.

기술 혁명의 전초선에 선 우리 청년들은 과학과 기술을 더욱 완강하게 습득하며 생산 공정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하여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으로, 부분적 작업 공정의 자동화로부터 종합적 전 공장적 자동화 체계의 수립에로 더 대담하게 더 빨리 실현해 나가야 한다!

청년생활 소사전

저장한 채소가 《숨을 쉰다》

얼핏 생각하기엔 저장된 채소가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지 포전에서 자라나고 있는 채소처럼 숨쉬고 있는 것이다.

저장 중에 있는 채소가 숨쉴 때에는 탄수화물, 지방등과 같은 그 어떤 양분이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있는 양분을 소비하며 변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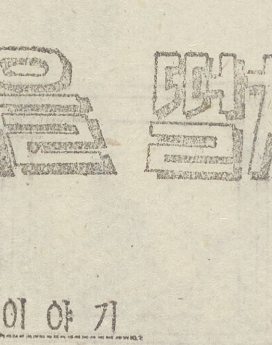
더우기 채소가 숨쉴 때 생기는 열은 저장고 내의 온도를 높여준다. 이것은 채소의 수분과 양분을 더 많이 소비되게하며 또한 세균들의 번식을 왕성하게 함으로써 채소를 변질시킨다.

그러기에 저장한 채소의 호흡 작용을 될수록 억제하기 위하여 저장고의 온도를 적당히 조절하여 주어야 한다.

대체로 그 온도는 령도 내외로 낮추어야 하는데 배추의 가장 적당한 저장 온도는 0~령하 0.5도이고 무우는 0~2도이다.

그리고 온도를 급격히 변화시키면 변질되기 쉬우며 저장 시 너무 건조하게 하면 시들게 되고 너무 습하면 부패되기 쉬우므로 80~95%의 습도가 적당하다.

국제 경기에서 이름을 떨치기까지



체육 명수 한 준 선수에 대한 이야기

한 준 동무가 모란 고중을 마치고 2.8 체육단 체조부에 들어 간 것은 스무살 때였다.

남달리 괄괄하고 강'기 있어 뵈는 그의 몸매는 단번에 체조 선수들의 눈을 끌었다. 그러나 반면에 그를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선수들도 있었다. 그것은 그가 체조 선수로서는 키가 작다고 생각되였기 때문이다.

하기는 그때까지만 해도 체조 선수는 키가 늘씬해야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선수들이 있었다.

어느 날 새 봄을 맞이한 체조부에서는 년간 훈련 과제를 수행할 데 대한 모임이 있었다.

손을 번쩍 들고 연단에 오른 한 준 동무는 평소에 먹은 마음을 터놓고 말했다.

《동무들! 저는 당이 가르치는대로 1 년 내에 국제적 수준을 돌파하고 말겠습니다.》

그에게서 이러한 말이 떨어지자 너무나 당돌하다고 생각하였던지 어떤 동무들은 구석쪽에서 쑤군덕거렸다.

《뭐? 1 년 동안에 국제적 수준을 돌파한다구. 원 어림도 없는 소리…》

《글쎄 말이야, 아직도 풋내기인 주제에…》

그러나 한 준 동무는 어려운 고비를 참으면서 대담하게 점차 높은 기술 동작 수행에로 나갔다. 그는 자기의 훈련 과제에 철봉에서 신비스럽게 여기던 거꾸러잡고 뒤로 크게 돌기, 공중에서 두바퀴 돌아 내리기 등 실로 고등 기술을 요하는 어려운 동작들을 포함시켰다.

그리고는 한 동작씩 훈련해 나갔다. 물론 힘이 무척 들었다. 한 동작이 되면 또 다른 동작이 되지 않았고 만약 된다 해도 자세가 곱지 못하였다. 정말로 마음대로 되지않아 안타까운 때가 많았다.

그러나 그는 한번하여 안되면 두 번하고 두 번해서 안되면 세 번, 열 번, 백 번이라도 거듭하면서 자기의 동작을 완성해 나갔다.

당이 가르치는 대로 더 많이 땀을 흘릴수록 높은 동작을 빨리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는 다른 선수들보다 실로 2배 이상 훈련하였다.

쉴참이 되여 남들은 공원으로 나가거나 그늘 밑을 찾아 들 때에도 그는 잠시도 쉬지 않고 그냥 철봉을 쥐고 돌아 가고 있었다. 꾸준한 노력은 반드시 거기에 상응한 열매를 맺는 법이다.

그렇게 훈련한 보람이 있어 그의 기술 발전은 눈에 띄게 빨라졌으며 점차 경험 많은 선수들을 따라 잡게 되였다.

선수 생활을 시작하여 1 년이 지난 후 한 준 동무는 벌써 국제 경기에 나섰다. 불과 1 년간의 훈련을 통하여 국제 무대에 나선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발전이 아닐수 없었다.

조국의 영예를 짊어지고 나간 한 준 동무는 높은 긍지감으로하여 가슴 벅차옴을 느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는 첫 국제 경기에서 《공중에서 두바퀴 돌아 내리기》 등의 동작 수행에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

그는 참으로 분하였다. 눈물을 머금고 조국에 돌아 온 한 준 동무는 종전의 2 시간으로부터 6 시간으로 훈련 시간을 늘구었다.

어떤 때는 밤에도 불을 켜고 련습을 들이대였다.

어느 날 밤 지도원은 체육관 모퉁이를 에돌다가 그 안에서 무슨 인기척을 들었다. 걸음을 멈추고 급히 문을 열어보니 그 안에서 한 준 동무는 혼자서 맹렬하게 련습을 하고 있었다. 그의 몸에서는 땀이 물쎈물쎈 났다.

지도원은 오늘밤은 그만하고 어서 들어가 쉬라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한 준 동무는 웃으며 대답하였다.

《지도원 동무! 괜찮아요.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려야지요.》

지도원은 그의 남다른 열성에 대해서 탄복하지 않을수 없었다. 어찌 그가 그렇지 않을 수 있으랴!

한 준 동무는 암흑의 땅 서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체조에 특출한 소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먹고 입을 것이 없어 불행한 자기 또래들과 함께 깡통을 차고 길'바닥에서 헤매지 않으면 안 되였으며 미제와 그 주구들의 가진 폭압으로 하여 그의 재능은 여지 없이 짓밟히우고 말았다. 오직 공화국의 따뜻한 품속에서만 그의 희망은 실현될 수 있었다.

살'길을 찾아 공화국 북반부에 들어 온 후 그는 우리 당의 지극한 배려하에 즐거운 학창 생활을 하게 되였고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직도 한 준 동무에게는 공중에서 두바퀴 돌아 내릴 때 머리가 아래로 박이는 것이 풀리지 않았다. 이 한 동작을 완성하기 위해 그는 무려 570 회의 훈련을 거듭하였다

하루는 훈련을 하다가 손'바닥에 부상까지 당하였다.

《할 수 없어, 며칠 치료 받고 훈련하라구.》 동무들은 그에게 이렇게 권했다.

그러나 한 준 동무는 그들의 다정한 권고에도 응할 수 없었다. 기술 동작이 거의 완성되어 가는 이 때에 쉰다면 그것이 아직 머리에 확고히 박이지 못한만큼 잊어 먹기 쉬우며 처음 그 동작을 배울 때처럼 다시 훈련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그는 비상한 결심을 다지고 훈련장에 나섰다. 그의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드디여 한 준 동무는 《공중 두바퀴 돌아 내리기》, 《360도 방향 바꾸어 내리기》를 완성하게 되였다.

전국 체육 대회가 열리는 날, 푸른 하늘'가에서 재롱을 피우며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제비와 같이 철봉에서 앞뒤로 막 돌아가다가 공중에서 맨 몸으로 휘휘 돌며 떨어지는 용감하고 매혹적인 그의 체육 기술은 모든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그는 이 대회에서 내각 수상상을 받는 영예를 지니였다.

젊은 선수는 이날의 감격을 안고 보다 높은 기술 고지를 향해 진군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1962년 그는 사회주의 국가 군대들 간의 제 1차 체조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게 되였다.

거기에는 각국의 이름 높은 올림픽 선수들이 많이 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조국의 영예를 지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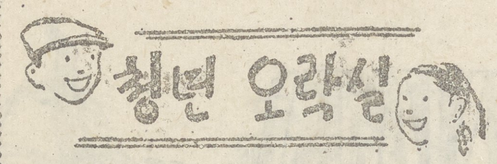
그는 이 대회 철봉 종목에서 2,000점 만점에서 1,930점이란 뛰여난 성적을 얻어 각국의 유력한 올림픽 선수들을 물리치고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였다. 그에 대하여 외국의 출판물들도 아낌 없는 찬사를 보냈으며 독일의 《노이에스 도이칠랜드》지는 한 준 동무의 사진과 함께 《2 년간에 세계 수준에 도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쏘련의 《쏘베뜨쓰끼 스포츠》지는 《올림픽 경기 참가자들에 대한 한 준의 승리는 극히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그 누구도 1,930점을 획득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한 준 선수를 따라 갈 수 없다.》라고 썼다.

경기장에 오각별 찬란한 공화국 기'발이 휘날렸을 때 그는 감격에 찬 눈물을 머금으며 굳게 다지였다.

《나를 키워 준 당에 더 큰 승리로 보답하려라.》

강 철 구



청년 오락실

현상 문제

철수가 일하는 수산 사업소에서 수리된 선박을 인수하려 갔다. 1 척의 어선에 4명의 로력이 붙으면 3명이 남고 5명씩 붙으면 2명이 모자란다.

어선의 수와 인수 사업에 동원된 인원수는 각각 얼마이겠는가?

속 담

△ 감 나무 밑에 누어서 홍시 떨어지기를 바란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우연한 성공을 바라거나 남이 자기에게 스스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 굴르는 돌은 이끼가 안낀다.

∴부단한 노력과 수양은 커다란 발전을 가져오며 아무런 노력도 없으면 퇴보를 가져 온다는 말이다.

△ 나간놈의 몫은 있어도 자는 놈의 몫은 없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아야 한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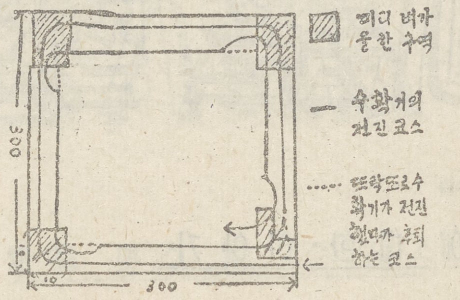
△ 주먹 구구에 박 터진다.

∴모든 일에서 사전에 면밀한 계획이 중요하며 만일 그렇지 못할 때에는 나중에 큰 곤란을 이르킨다는 말이다.

10 호 현상 문제 해답

① 다음의 그림과 같이 미리 벼 가을을 한 후 수확기를 一선 방향으로 전진시키면 논'가로부터 10 메터 이내 구역의 벼를 몽땅 수확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수확기를 마음대로 왕복시키면서 수확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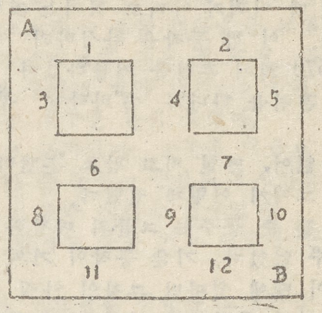
②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코스를 보면 그림에 표시된 바와 같이

ㄱA—1—2—5—10-B, ㄴA-1-4-7-10-B.

ㄷA-1-4-9-12-B, ㄹA-3-6-7-10-B.

ㅁ A-3-6-9-12-B, ㅂ A-3-8-11-12-B.

B점에서 A점으로 오는 코스도 역시 6 가지이다. 갔다가 돌아 올 때는 6 가지의 코스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6×6=36 즉 36 가지의 코스가 있게 된다. 때문에 한달을 최고 31 일로 계산하여 매일 코스를 달리 할 수 있다.



《청년 생활》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청 출판사 주소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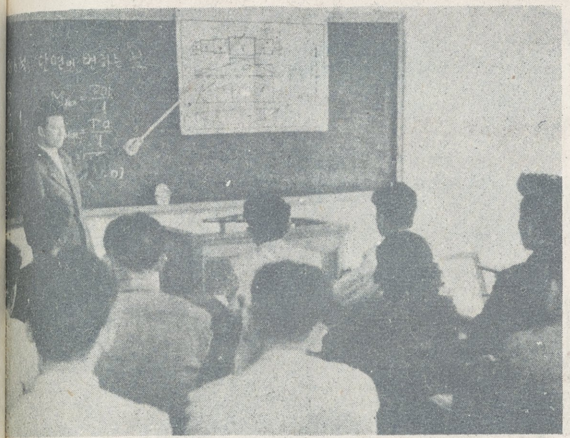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전화(38—58 83—85)

1962년 11월 10일 인쇄 1962년 11월 15일 발행

ㄱ—320690

로동자 대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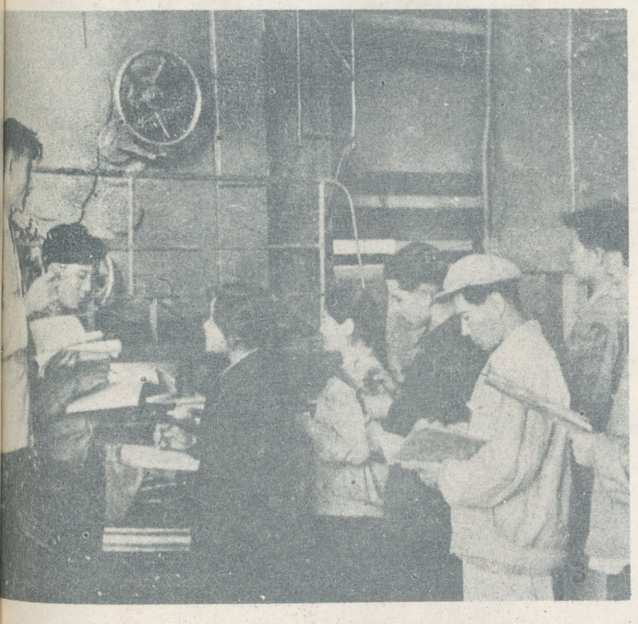
—룡성 기계 공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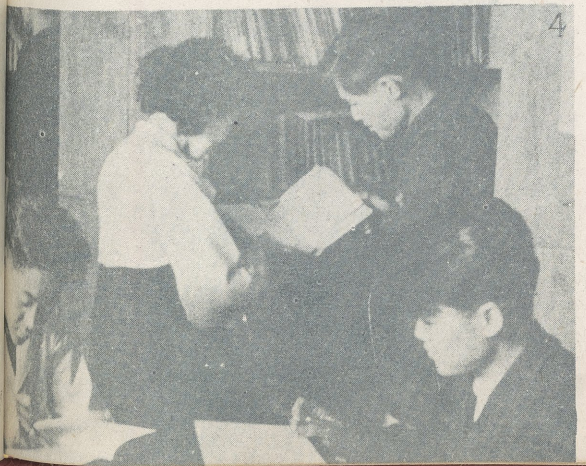
① 생산에서 풍부한 실천적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 강의에서도 리해하기가 쉽다.



② 물리 실험실에서 실험도 하며…



③ 현지 강의를 통하여 보다 정확한 지식을 습득한다.



④ 언제나 로동자 대학생들로 흥성거리는 공장 도서실.



⑤ 일하며 배우는 다함없는 행복을 노래에 담아……



삼 지 연

W.8